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2011년 1월 1일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발행 · 편집인 洪元基 인쇄인 이영일

사단법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E-mail : kjc1405@hanmail.net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02)732-4797
02)732-4798
02)2273-4253
Fax 02)730-1270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98호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低質정치’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상거래'로 치부하고 마는 세상이라면 대학교수는 스스로를 일개 노동자로 몸가치를 낮추어, 준 노조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처우개선이나 문제삼으며 경영층과 맞서고, 목사와 신부와 스님들은 절이나 교회를 신도와 돈을 흥정하는 상거래 장소로 그 품격을 떨어뜨려 장사꾼이 되고,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로부터 돈을 더 많이 뜯어낼 것인가에 열중하고, 나라를 지켜야 할 장성들은 국방보다는 일신상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일개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언론인은 여기저기서 정보나 수집해서, 비싼 값으로 되팔려는 상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간다면, 그나라는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실로 모퉁이 송연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이다. 정치란 원래 돈벌이의 수단이다. 나라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공통의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정치라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을 존재케 하여, 이들에게 멸사봉공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특수 제도이다. 그렇게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란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헌금을 하고, 일정한 면책특권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하건만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예우와 특권을 사물시하여, 나라에 해가 되는 망발을 거듭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논쟁을 한답시고 건전한 시민, 상식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쌍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시도 때도 없이, 파괴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안 보인다. 어제까지 저 당에 속했을 때는 매국노처럼 매도하던 정치인을, 당이 바뀌자마자 손바닥을 뒤집듯 태도를 바꾸어 애국자로 칭송하며, 여태까지의 자기주장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신병자 같은 변신을 하고 마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물건대, 그대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토록 구차한 행위를 해가며 정치에 종사하고 있는가. 비유하자면 그대들의 행태는 돈벌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병을

덜나게 하여, 더 많은 진료비를 챙기려는 것과 같은 파렴치 행위가 아닌가. 이것이 '저질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런 괴행 위들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정권탈취를 하겠다는 목적 때문이 아닌가. 정권은 무엇 때문에 획득하려 하는가. 그것이 다른 어떤 장사보다도 남는 장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획득하려 하는가. 첫째 국가의 예산을 자기의 입맛대로 편성하여, 그 중 상당

특별기고



박현태

- 본회 회우
- 전 국회의원
- 전 KBS사장

그런 사태를 부른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비 대화적' 태도에 돌리며 북을 옹호한다. 이쯤 되면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그들은 국적이 없는 '우주인'인가.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아예 없다. 정치장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할 일이다. 지금 이 21세기는 원하기만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질정치의 기저에 있는 사고방식이다.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과대포장 하여 민중을 흥분시켜 준 폭동적 사태를 유발하여 정권탈취에 성공한 사례를 우리 정치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설사 망국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일단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것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는 명분으로 모든것이 정당화되었다. 그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토록 최단시일내에 근대화 사업화에 성공하게 한 공로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들은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원수처럼 미워한다. 마치 산 자가 죽은 자와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왜 그런가. 저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넘어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해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의 존재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도 부인한다. 남북협상을 주장했던 김구선생의 공

정권 탈취 눈 어두워 파렴치 행위 자행 북한의 변태적 행위에도 감싸기 급급

부분을 자신이나 어떤 특정 개인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둘째로 대소 감투를 경매에 부쳐, 매관매직을 감행하여 소리 소문 안 나게 사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북한의 변태적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비분강개 할 줄을 모르고, 사사건건 그들을 감싸면서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대들은 모르는가. 그러나 저들은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는 도저히 정치장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반면 우리 나라에서라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과거에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정권을 잡

로만을 높이 찬양하며, 당시 새로 발행하려던 심민원권 지폐의 초상으로 김구선생을 넣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승만 박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들은 오늘 과연 정치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겠는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6·25 전쟁에 대해서도, 그것을 격퇴한 것은 잘못이라는 언설을 감히 늘어놓기도 한다. 그 말이 옳았다면, 그때 대한민국이 패망하였더라면 그대들은 오늘 어디에 가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들의 주장은 반국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저들은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사실만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일시 집권에 성공한 사실에만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집권을 하고 분수에 넘치는 감투를 쓴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자식을 형무소에 수감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무의미한 사실이었는가.

2011년 정기총회 공고

대한언론인회 2011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총회일시 : 2011년 1월 28일 오후 2시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 건 : 1. 2010년 결산 보고
2. 2011년 예산안 의결
3. 2011년 사업계획

大韓言論人會 회장 홍원기

2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2010 송년회-출판기념회 대성황

전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고회축하-효행상 시상 ———— 2010 송년회

2010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이 12월 14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흥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 이해복, 신우식, 제재형 고문과 조창화 명예회장, 본회 임원진 등 2백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송년 모임은 대한언론인회가 심혈을 기울여 간행한 '한국언론인물사화(제7권) 출판기념회와 올해 고회를 맞은 회우 33명에 대한 축하연도 함께 치러졌다.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원로회우를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흥 회장은 또 "새해에도 우리 대한언론인회 집행부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온 후생복지증진사업을 비롯하여 원로 언론인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하겠으며, 회보도 현 기조를 유지하되 회원중심회보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언론인회 정운종 상임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행사는 먼저 본회의 재정기반구축과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이해복 신우식 제재형 고문과 조창화 명예회장에 공로패를 증정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합동 고회연은 고회를 맞은 회우들에게 흥원기 회장이 금일봉을 전달, 축하했고 33명의 고회 회우를 대표

해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회우가 답례인사를 했다. 성병욱 회우는 답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줘 고맙다면서 고령화 사회인 오늘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효행상은 수년간 노환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는 아버님의 간병에 정성을 쏟아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본회 현영건 회우 따님에게 상패와 함께 상금 1백만원이 주어졌는데 수상자가 아버님 병간호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원로 회우인 조성국 회우가 대신 수령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송년회는 본회 이해복 고문을 시작으로 조창화 명예회장, 신우식 제재형 고문의 건배사가 이어졌고 소주와 맥주를 곁들인 푸짐한 뷔페 만찬을 들며 즐거운 환담의 시간을 만끽 했다. 이날 흥원기 회장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언론계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한 송년회·출판기념회장.



공로패를 받은 전회장들(왼쪽부터 이해복, 신우식, 제재형, 조창화전 회장과 흥원기 본회회장).



효행상을 대신 받은 조성국 원로 회우(왼쪽).



고회축하 답사를 하는 성병욱 회우.



축사하는 김재호 신문협회장.



감사패를 받은 이성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왼쪽).



언론인물사화 발간경위 보고를 하는 김성배 본회 부회장.

김재호 신문협회장 등 언론사 대표 대거 참석 ———— 출판기념회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펴낸 한국언론인물사화(7권) 출판기념회가 12월 14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한국신문협회 김재호 회장(동아일보사장), 한국일보 이종승 사장,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 서울신문 이동화 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 및 전 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많은 분들

이 축하 화환을 보내와 행사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책은 자유언론 창달을 위해 외길을 걸어오신 언론 선각자들의 일화를 정리해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간행됐다"고 말하고 이 책을 간행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한언론인회 600여 회우를 대표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재호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언론 창달을 위해 외길을 걸어오신 선각자들의 빛나는 발자취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후진들은 선배 언론인

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종이 신문이나 기술적인 진보를 앞세운 영향력과 무한경쟁에 둘러싸인 방송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전하면서 비록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사회의 원로로서

자유언론의 창달과 언론 산업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대한언론인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하 화환〉

김재호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 회장
이재천 CBS사장
정재호 헌정회 수석부회장

장학준 신아일보 사장
남궁호 메트로 신문사 회장
이재포 노컷 뉴스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
손일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장재구 한국일보미디어그룹 회장
〈축전〉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광고 협찬〉
한국방송광고공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금일봉〉
문화일보, 서울신문

1면에서 이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었다가를 생각해보았는가. 감투는 극악이다. 감투를 탐하지 않았더라면 명예롭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도 감투 때문에 망신을 하고 죄인이 되고만 사람이 너무나 많다. 어떤 외국 정치인이 말했지만 정치인은 높은 형무소 담장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운 좋게 담장 밖으로 떨어지면 멸절한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발을 헛딛어 담장 안으로 떨어진다면 일시에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감투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감투 쓰기를 산중에서 범을 만난 것처럼 무서워해야 한다. 저질 정치의 기저에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법이 무른

데에 있다.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하였다 해도 정치인들에 대한 양형은 가볍다. 가벼울 뿐 아니라 구속정지, 감형, 사면 등으로 곧 풀려나 복권된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입후보하여 원래의 감투를 다시 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바보다. 형무소를 다녀온 사실은 투쟁경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하대못해, 이른바 '담장 차'라도 댔던 전력이 있어야 정치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 전

과자라는 것은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이 된다. 이 무슨 가치전도인가. 국민을 깔보아서는 안 된다. 새삼스럽게 사찰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저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뿐 아니라 복에 대해서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그대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다는 냉엄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필자]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회우 여러분 모두 행운과 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니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6·25 60주년을 맞는 해에 북한은 제2의 6·25 남침전쟁이나 다름없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으로 국군장병 48명이 전사하고 민간인까지 사상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G20 정상회의가 열려 나라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는가하면 광주우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기량 과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한언론인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난해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6·25 60주년을 기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토론회에 이어 참전

辛卯年 새해 인사드립니다

언론인동우회가 발족되었으며 송년회에 결들여 시상하던 대한언론상을 별도로 시상해 언론계에 신선함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를 앞세운 영향력과 무한경쟁에 들어선 방송이 그렇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이신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언론인회 역시 이러한



홍 원 기
· 본회 회장

변화와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비록 현직에선 물러나 있지만 사회의 원로로서 자유언론의 창달과 언론 산업의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관을 공고히 하는데 우리 대한언론인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로 하강곡선으로 치닫는 은행금리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효과적인 돌파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금 확충과 수입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사실을 다함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집행부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온 후생복지 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원로 언론인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보도 현 기조를 유지하되 회원중심회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언론인회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과 애정 어린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辛卯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MB, 盧 정부 실패서 교훈 찾으라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 시절 당시 청와대가 가장 중요시했던 회의가 3가지 있었다. 전국새마을대회, 수출진흥확대회의, 정부·여당연석회의가 그것이다. “잘 살아보세!” “수출만이 살길이다” 경제발전과 조국근대화를 위해 소집됐던 이 회의들은 이름만 들어도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7년 재임 기간동안 국무회의는 이따금 국무총리에게 맡겼으나 앞의 3개회의는 해외방문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접 주재했다. 이들중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주요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간의 협의와 조정을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추진했던 회의이다. 연석회의는 초기에는 매주, 그후에는 격주(隔週)로 소집됐고 유신체제때는 매월 1회씩 열렸다. 회의때 좌석배열은 늘 일정했다. 대통령이 앞쪽 중앙에 정좌하고 오른쪽에는 여당인 공화당의 당의장과 당5역 핵심 당무위원들이, 왼쪽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배석했다. 회의는 대체로 내각이 추진하려는 주요 국책사업과 계획안을 설명하면 여당쪽에서 질의 비판 또는 수정문을 제기했다. 이어 여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수렴한 민의를 분야별로 건의하면 정부측이 이를 평가했다. 회의는 단순히 보고하고 1~2가지 질문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타당성여부에 대해 토론에다 때때로 논쟁·설전(舌戰)을 벌였다. 특히 토론엔 정부측에서 담당 국장·과장이, 당에서는 정책연구실장과 전문위원들이 가세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은 치열한 찬·반논쟁을 즐겼고(?) 엘리트 공무원 몇몇은 나중 차관·장관으로 승진 발탁됐다. 훗날 경제부총리나 장관을 지낸 장예준 이회일 박봉흠 고병우 등이 그들이다. 박대통령은 심의·토론이 진행되는동안 묵묵히 지켜본후 막바지에 가부(可否) 또는 유보나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연석회의와는 별도로 각분야별로 거의 모든 계

획한 법안 예산안 등에 대해 수시로 실무급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들 2가지 방식의 정책의 협의·조정엔 박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모든 계획은 정부 혼자만으로는 성공할수 없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여당과 서로 모든 것을 알리고 협의하고 공감대를 설정할때 추진력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필

時 論

이 성 춘
· 본회 회우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전 고려대 석좌교수

매주 16개시도를 순회 실시키로 한 것이다. 당정분리는 대통령은 국가경영·국정운영에만 전념하고 여당은 대표를 뽑아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정부와 여당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 업무에만 전념하자는 것이다. 의견상으로는 얼마나 멋진 체제인가. 이를 채택한 민주당이 그해 봄 매주 각지에서 국민참여경선의 흥행성과를

허점의 결과는 특히 재보선때마다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당의 실책도 있었지만 주로 참여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그대로 덮어쓰곤 했다. 그래서 재보선·참패·대패때마다 노대통령과 여당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네 탓”이라는 언쟁을 되풀이했고 임기 막바지에는 당쪽에서 아예 연(緣)을 끊자는 절규까지 나왔던 것이다. 필자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술한 실정과 실패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당정분리제도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정권의 버팀목이자 정책추진의 협력자·추진체인 여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야당과의 대결 못지 않게 여당과의 마찰에 정권의 힘을 소모한 것이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았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대선승리 3주년을 자축했고 오는 2월 26일에는 5년 임기중 4년차에 접어든다. 올해 이명박정부의 숙제로는 경제회복·일자리창출·친서민 외에 거대여당과의 원활한 당정정책협력, 국민각계 및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 비판세력도 포용하는 열린인사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나 거대여당이 무기력증상에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어정쩡한 당정관계는 문제가 많다. 더구나 오는 4월 27일에는 재보선이, 내년에는 19대 총선이, 그리고 2년뒤에는 18대 대통령선거가 출저어 있지않은가. 한창 대국민 설득요원으로 뛰어아랄 의원들을 묶어두고 방치하게 하는 당정분리는 빨리 총재를 겸하는 당정일원화로 바뀌어야한다. 과거 역대정부처럼 총재를 겸하지 않더라도 지금상태에서 월례 당정 연석회의를 부활시키는것도 방법이 될수있다. 막중한 우군(友軍), 전력(戰力)을 이름만의 여권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실질적인 당정협력없이 19대총선도, 정권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당정분리는 여당의 무기력화(化)의 지름길이다. [인]

黨政분리로 巨與 무기력화 우려 月例 연석회의등 열어 결속해야

자는 이같은 당정간의 정책협의를 박정희정권의 경제발전과 근대화 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정책을 함께 협의·결정한후 정부는 추진하고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분담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상당부분 성공에 기여한것이 틀림없다. 박정권 이후 역대정부의 당정간 정책협회의는 한낱 형식적인 절차로 퇴색했다. 결과는 정부의 뜻대로 밀고 나가고 여당은 구경꾼정도로 추종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7년전부터 우리 정치권(圈)에는 당정분리(黨政分離)제도가 도입됐다. 비리와 실정(失政)등에 의해 레임덕(Lame Duck)에 깊이 빠진 김대중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혁·쇄신케 한것. 2002년 1월에 발표한 민주당 개혁안중 대표적인 특징은 당정분리제와 대통령후보 경선을

보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갑자기 당헌을 개정하여 당정분리제를 도입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분리, 그리고 집권할경우 대통령과 당대표가 나란히 정부와 당을 이끈다는 것이다. 아무려나 2003년 3월 취임한 노무현대통령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상호 비(非)간여 비간섭원칙에 따라 의중대로 조·개각(組·改閣) 등 인사를 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메운 386세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은 “앗차”했을 것이다. 각료추천의 길이 막히고 정책협회는 시늉만 함으로써 집권당은 이름뿐으로 소외감, 허탈감을 절감해야 했다. 여당이면서 큰집(청와대) 마음대로 국정을 요리하는것을 구경만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당정분리의 문제점과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알권리와言論 자율기능 조화를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 언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위력(威力)한 사상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선전자 및 집단적 선동자이며 집단적 조직자로 정의한다. 김정일 우상화와 북한 체제 우월성의 홍보가 언론의 주된 역할인 동시에 보도의 기준이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부한 이야기다. 하지만 안다고 방심하는 곳에 치명적인 덫이 도사리고 있다.

2010년에 김정일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기습공격을 가했다. 우리의 안보는 큰 위협을 받은 상황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김정일이 기습 공격을 감행할지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60년 전의 6·25전쟁 때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에 자랑할 수준의 첨단 과학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회다. 농경사회는 공격 받는 장소에 국한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거미줄처럼 연결된 전국의 교통과 통신 시설, 석유 가스와 같은 위험물질이 도처에 깔려 있다. 휴전선과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국지적인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안보 취약 시설이 전국에 널려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군 관련 보도에는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적의 공격을 볼

러울 수 있는 위험한 정보를 노출하는 일은 없는지 걱정스러운 경우가 있다. 서해를 지키는 군함, 비행기, 레이더, 대포가 무슨 기종이며 몇 대가 있다는 등의 정보와 연평도의 피해 장면 등을 신문과 방송이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강제적인 보도통제의 대상은 아니며 군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했을 수도 있다. 그

특별기고



정진석

• 본회 명예회우
• 한국 외국어대 명예교수

한을 편들고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의 한계를 어느 선에서 조화롭게 그을 것인가를 간단하게 규정할 문제는 아니다. 언론은 자살한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죽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군사관계 보도에도 유사한 기준은

단 46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대통령을 향해서 '리명박 역적 패당'이라는 막된 용어로 대한민국을 모독한다. 반면에 우리의 방송과 신문은 깃듯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한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국군은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겠지만 기습 공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2010년의 두 사건이 국군과 북한군의 전략과 전력을 비교할 계기로 삼았듯이 언론도 국가 이익과 알 권리의 한계를 조화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한다. 이 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 생긴 적도 있었다. 언론 자유의 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피해를 본 언론인도 많았다.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큰 제약 없이 보도와 논평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역대 정권이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려고 시도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노력한 결과다. 이제 언론이 국가이익을 위해 군 관련 보도에 자체적으로 신중을 기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언론이 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

사실 보도 명분 허위사실 확대 재생산 군사기밀 한계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

러나 과열경쟁으로 군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언론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북한의 적반하장 거짓말을 사실보도라는 명분으로 중계하는 때도 있다. 북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언론을 통한 거짓선전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같은 선동전략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신문방송통신사 사장

北위협 특단의 軍 대비태세 시급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 어뢰공격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연평도 포격사건은 백주에 영토공격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은 금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도발형태와 양상이 갈수록 커지고 대담해진 결과인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통항질서를 선포하고 이를 군사력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계산된 도발을 해왔던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대담하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핵개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핵과 화생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고 난 후 더욱 대담해졌다. 그전에는 미국의 억제력을 무섭게 생각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1994년 '서울불바다', 2003년 '핵억제력', 2009년 '보복성전', 2010년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을 외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돈이 많이 드는 재래

식 군비경쟁에서는 남한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과 화생무기, 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다. 대량 살상무기의 대외 수출로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했으며,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북핵의 인질로 삼고자 시도했다. 대칭적인 수단으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특수전부대, 수중전력, 사이버전력 등 비대칭위협도 증가시켰다. 이제 핵억제력과 비대칭억제력 사용을 협박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이나 자위적인 군사적 대응도 못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북한이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의 공격 전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신속결전을

특별기고



한용섭

• 국방대 부총장

감행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을 포함한 전방지역을 북한이 먼저 타격하고 핵억제력을 사용한 보복을 위협하면서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이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고 서해 5도에 대한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군은 서북방어를 하는 해병대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NLL 침범은 해군이 담당하고, 북한군이 서해 5도에 상륙하면 해병이 저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해 5도의 중요성을 연평도 포격을

받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특히 햇볕정책을 수행한 지난 10년간,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북한이 얼마 군사적으로 도발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허위 평화공세에 가려진 북한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북한이 도발수준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수세적 대응을 보였으며, 북한이 해안포를 강화하고 방사포를 전진배치하며 해상과 공중으로 서해에 대한 위협을 강화시키는 북한관 합동전 구사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는 해군이 지키고, 서해 5도는 적이 상륙하면 해병대가 퇴치하고, 공군은 경계만 하고 있는 따로따로식 수세적 방어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군은 달라졌다. 9·11 이후 미국이 현대전은 첨단재래식 무기에 의한 정규전만이 아니라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쟁임을 인식하게 된 것 같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훨씬 복잡한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지닌 도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각계 포진 '内部의 적' 더 위험하다

우리는 수나라와 당나라 대군을 물리치고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를 자랑스런 역사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멸망(668년)과정은 너무 허무하고 순식간이었다. 평양성(지금의 환인)은 당나라군이 성을 포위한지 한달 만에 무너졌다. 그것도 장렬히 싸우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줘 저절로 무너졌다. 그 고구려 멸망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싸움때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진짜원인은 지도부의 오만과 심각한 내분때문이었다. 여러차례 당나라군을 물리치면서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오만과 사치에 젖어 있었고 도교와 불교세력간의 종교적 갈등, 귀족들간의 알력등 심각한 내분상황은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기근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그보다는 오만과 내분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천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을 지금 다시 곱씹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내부의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큰나라라도 거덜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적과 60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데도 우리내부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에 도취되어 북한을 우습게 알고 있다. 우리가 G20 회의를 주재하고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바뀌며 세계 무역 10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최근 '국방개혁 선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이상우추진위원장은 작업과정에서 느낀 소감으로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들이 북한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는 우리가 최첨단의 4세대를 갖고 있지만 군지휘체계 전략능력 전투의지등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2세대에 불과해 한국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각계각층이 오만과 정신력 해이,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다. 내부분열은 이보다 더

時 論



도 준 호

• 본회 이사
• 전조선일보 논설위원

종북주의자는 북한이 연평도포격때 남한주민들을 배려해 폭발탄을 쓰지않고 화염탄을 쏘아 피해가 적었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천안함폭침 이후 정부가 국내전문가와 국제전문가를 동원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유엔안보리에 제소하자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얼마전엔 정진석 추기경이 북한을

하는 것이 정의일텐데 그들은 지금껏 그런 노력을 보인 적이 없다. 이들 세력은 침투 안한 곳이 없다. 교육, 법조, 언론,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민노당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김정일체제하에서는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데도 과거의 '햇볕정책' 미망에 사로잡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단호한 대응보다는 '대화'만을 외치고 있다. 천안함사건이후 국민의 30%가 북한소행이라는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봐도 우리사회가 얼마나 좌경화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상황인데도 좌파를 척결하고 국민을 단합으로 이끄는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기능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경제적 리더십은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으나 나라의 기본인 안보에 관한 리더십은 실종상태나 마찬가지다. 좌파정권 10년에 뿌리를 둔 우리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선 확고한 법치확립과 국가관이 투철한 인사의 등용, 좌파들이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조성, 건전한 시민단체들을 육성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천안함폭침사건에 이은 연평도포격으로 국민들에게 조성된 위기의식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를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내부안보를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부의 적은 성벽을 높이 쌓으면 되지만 내부의 적은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허물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문]

중북·친북·사이비 민족공조론자 득실 투철한 국가관 바탕 安保리더십 절실

심각하다.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사이비 민족공조론자들이 거대한 세력군을 형성해 각계에 포진하면서 피땀흘려가꾼 우리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에게는 수백만주민을 아사로 몰아 넣은 김정일이 민족지도자이고 남한체제는 친미사대세력이 판치는 반동세력일뿐이다. 어느 목사는 세계가 지탄하는 수령독재체제로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북한에 몰래 밀입국하여 적도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의 대통령이 독재자라며 타도하자고 외치는가 하면 다른

비판했다고 해서 정의구현전주교 사제단은 추기경이 미움을 부추기고 궤변을 일삼는 골수반공주의자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순명과 복종을 기본으로 삼는 신부들이 아버지같은 추기경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북한문제만 나오면 그것을 적극 옹호하는 그들에게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총재의 말처럼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북한주민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권개선노력을 하다 순교

4면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리의 군대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무차별 타격하며, 우리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미·중간, 한·미·일과 중·러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정치외교적 목적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수준에서 북·중간의 유대를 약화시킬 전략을 모색하고, 국방차원에서 북한군의 도발을 즉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한 후에 대응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북한의 도발 후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북한을 억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우리가 적기에 필요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첨단 C4I체제와 합동정밀폭격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국문]

KBS뉴스속보 서비스 대한언론인회우에 제공 1월 15일부터 휴대폰으로

KBS의 뉴스속보 서비스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이제까지 전·현직KBS가족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달되던 'KBS속보'가 2011년 1월 15일부터 대한언론인회 모든 회원들 휴대폰에도 서비스 되는 것이다. 이 뉴스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뉴스를 실시간뉴스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 뉴스는 KBS의 전국 취재망과 전세계에 나가있는 KBS특파원들, 그리고 외신을 24시간 커버한 결과를 신속히 생산 발송하는 것이다. 이 뉴스서비스 배려에 대해 후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KBS 김인규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발전적인 상호협력의 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KBS 열린음악회 방청 신청 받습니다

대한언론인회는 새해 2월 중에 KBS 견학과 동시에 '열린음악회'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관람 일자와 시간은 대한언론회보 2월호에 알려드립니다. 희망자는 1월 15일까지 대한언론인회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접수합니다. 접수전화 :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732-4797~8

언론가소식

관훈클럽 총무에 정병진씨



관훈클럽은 12월 22일 총회를 열고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제 58대 총무로 선출했다. 정병진 신임 관훈클럽 총무는 서울대 정치학박사를 졸업하고 1983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 정치부장, 사회부장, 부국장등을 지냈다.

신문윤리위 심의실장 최영주씨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2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새 심의실장에 최영주 심의위원을 임명했다.

연평도 포격 日 언론 視角 돋보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한 사회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민주적인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비핵·개방·3000 대북 제의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 등은 모두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에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 국가가 힘들게 채택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EU), 미국, 유엔 등은 잘도 채택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배운 게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민·군 인명 살상에 대해 중국은 뚝뚝이 같이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여 우리 국민들의 부아를 있는 대로 돋우었다. 군사적인 무력 공격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늘 옹호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세계 경제규모 2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대국이 될 준비가 안 된 나라의 대국 행세' 같은 것이다. 지도 국가가 되려면 인류 공통의 이상과 정신적인 가치를 범세계적으로 구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의 3대 독재세습 인정과 같은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2월6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 전쟁범죄의 수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도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범죄적인지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3표 반대 18표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여기서도 중국은 누구와 대화와 협력을 하라는 건지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

동 제출한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독재 옹호 체제로 머물러 있으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 지배세력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인 유대란 각기 자신들의 체제 변화에 대한 공통의 두려움이 아닐까? 중국이 2010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의 자국 내 보도를 극력 차단한 것도 중국 내 사회의 변화 희

신문시평



김영환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北에 대한 中國태도 날카롭게 비판 국내언론 어정정한 보도 自省해야

구 세력 증대에 따른 정보 제공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협약에서 "북한의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 한반도는 안보 정세의 취약 지역이다. 정세의 악화를 단호하게 방지해야한다. 대화에 의한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과 긴박성이 입증됐다고 호소했다. 오바마는 이에 대해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 포기를 약속한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 성명 등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 공동성명도 "중국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일본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자. 일본 최대지인 요미우리는 11월27일자 사설 '중국도 북 역자의

대시킨 것은 아닐까. 북한의 현 상황을 묵인한다면, 지역 정세는 불안할 증가시킬 뿐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현실을 중국은 인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는 12월8일 사설로 "내년 1월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대중국 설득에 꺼림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결속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지와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오바마 정권에게 그것도 주문해두고 싶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도 11월24일자 사설로 연평도 포격에 대해 "결단코 용서되지 않는다.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즉시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의 폭거를 불러온 큰 책임은 중국에 있다. 한국의 초계함 침몰 사건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면서 북한

의 권력세습 지원과 경제원조 제공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해왔다. 이번에도 중국은 바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지 않고 6자회담의 재개를 언급할 뿐이다. 북한을 애지중지해온 것이 폭주를 허용하고 있다. 그 책임을 중국은 자각해야한다"고 일본 매스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중국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11월24일 사설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중국도 어느 때보다 강한 태도로 불합리한 행동을 멈추도록 움직여야한다"고 밝혔다. 12월8일자 사설에서는 후 주석이 "조치를 잘못하면 한반도에 제어불능의 상황을 불러오기 쉽다"고 한 언급을 환기시키면서 "그렇다면 특사를 평양에 보내 김정일 총서기와 직접 담판하여 후 주석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선 "갑정이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기 쉽다. 억제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고도 했다. 마이니치도 12월8일 "중국은 한국 포격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당사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것이 선택지가 될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중국이 외교 관례를 무시하며 하루 전 통고로 특사를 청와대에 파견하고 북한에도 보냈지만 그런 외교적 제스처가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방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알 수 없다. 지주국방의 기틀을 다진 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8월18일 북한이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도끼만행 사건을 자행했을 때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명언을 했다. 국제법은 너무 멀리 있다. 일본 언론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국가안보를 위해 얼마큼 정론을 펼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느낀다. [4]

北 두려워하지도 알보지도 말자

지난 20일 연평도 포격후련이 있던 날 서울-인천-연평도를 잇는 길따라 교통선에는 세계에서 몰려온 2백여 명의 기자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침나절 내내 질게 깔린 서해전운을 감시하고 있었다. 연평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아침 일찍부터 통제되었지만 군대를 따라 들어간 기자단 30여명과 이런 저런 수단을 동원해 개별적으로 스며든 40여명의 또 다른 기자들이 얼마 후 불을 내뿜을 해병대 포문을 주시하고 있었고 서울의 국방부기자실을 비롯한 요소요소에는 외국에서 긴급히 파견된 1백 명 이상의 외국 특파원들이 여차하면 긴급뉴스를 날릴 태세를 한 채 초긴장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세계의 온 신경이 연평도 포격소리에 집중되었다. 오전 11시경 포탄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시

간이 연기되고 있었다. 북한은 후련이 강행되면 가차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여러 번 위협 해 왔고 원자탄운운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개 때문에 포격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전쟁의 비극을 품어 있게 막아주는 기적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오후 2시30분 해병대는 거대한 포문을 열어 90분간 2천여 발의 포격연습을 했다. 연평도 시민들은 이미 방공호에 들어

時 論



정 일 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정치학 박사

가 있으면서 이 포성이 오직 대한민국의 포성만이기를 바랐다. 인민군의 보복공격이 선전내용대로 들어온다면 사태는 심각하게 번질 것이었다. 그러나 북은 침묵했다. 뒤에 나온 방송에서 북한은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지 하지 않겠다"는 어색한 발언으로 보복사격을 접은 이유를 발표했다. 한국에 몰려든 특파원들은 전쟁불길 가운데 빠질지 모른다는 불

안을 일단 접을 수 있었지만 원자탄이 개입된 거대한 전쟁사태의 전말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아쉬움을 안았다. CNN, BBC, NHK와 같은 세계의 거대 매체들이 '상황 끝' 맺음을 하면서 연평도 현황취재에서 쑥 빠져나가자 한반도는 다시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애매한 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자제할 것을 주장하는 데도 새로 들어선 군 지휘체계와 청와대가 올바르게 나가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북한강좌정권에 의해 농락당하는 일은 벗어났다. 그러나 남한을 공격하고도 응전하면 '천만배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평평거리기는 북한의 침략무력은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토론프로 ‘情報누출 발언’ 심하다

김정일이 비스듬히 누워 남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TV토론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몸을 곧추세웠다.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불륜을 높이고 더 열중했다. 잠시 후 김정은을 불렀다. 부자의 대화다. <“김대장! 저 남쪽 TV좀 같이 보자우!” “네 저도 저 방송보고 있었습네다.” “아 그래! 참 고맙구먼, 자세히 들어볼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잖나?” “네 그렇습네다. 우리가 고심하는 문제의 해답을 남한 TV가 죄다 가르쳐 주는구만요.” “고럼, 고럼. 저 국회의원의 해박한 국방과 안보에 관한 식견을 그대로 우리가 써먹을 가치가 있지 않겠나. 잘 검토해 보라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동지 그리고 저 박사는 남조선 인민들의 깊은 생각까지도 잘 분석해 주고 있으니 최고의 정보가 되겠습네다. 그리고 저 낮익은 교수는 남조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내막까지 소상히 알려 주네요. 앞으로 작전에 좋은 참고가 되겠습네다. ㅋㅋ” 연평도 포격 만행의 연기(煙氣)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방영되는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상상해본 픽션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점에서 왜 저런 방송을 하고 있나?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율화통이 치미는 내용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방송들이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만행 직후 TV 방영을 지켜보면서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다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뻔한 사건이었기에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이 일관됐고 비중도 높았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초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그 감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고 그 대상으로 TV토론을 선택해서 집중 모니터 했다. 방영된 날짜순으로 짚어 본다.

먼저 2010년 12월 2일 자정을 넘겨 방영된 MBC의 100분 토론이다. 프로그램 바로 전에 MBC 논평이 있었다. “군사기밀 유출이 지나치다. 군사기밀 유출은 이적행위”라는 내용이었다. 그

런데 이어진 ‘연평도 도발 그 후’ 신냉전시대 오나’라는 부제가 붙은 MBC 100분 토론에서는 앞의 논평을 뒤집는 자가당착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멋대로 된 방송의 방향 없는 프로그램의 진면목을 보는 듯했다. 박광은 논설위원이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에는 최재성, 송영선 의원과 김근식, 윤덕민

방 송 시 평



호 천 응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지국장
- 수필가

우리측 허술한 속사정 낱낱이 공개 북한이 선택할 방법 상세히 알려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남북 대결에서 북한이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모든 방법을 아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남한 민심의 흐름과 여론의 향배까지 날카롭고 깊이 있게 분석했다. 북한 간첩이 때로 몰려 와도 얻기 어려울 귀한 정보들이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의 방법과 그 후과까지도 상세히 가르쳐 주면서 그럴 경우 우리의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속 깊은 사정까지 드러내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결심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식견을 늘어놓는, 그래서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판에 송영선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서로 상대를 탓하는 정과 싸움을 벌이는 후안무치한 작태까지 연출했다. 김근식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폄하하는 말로 정체성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최재성

나 아니면 이런 행태를 막지 못한 혐의로 역사에 기소될 것이란 생각까지 들게 했다. SBS는 12월 3일 심야에 SBS 시사토론을 “北 추가 도발하냐?”라는 주제로 방영했다. 김형민 위원이 사회를 본 SBS시사토론에는 이기준, 박주선 의원과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군사 평론가 김중대 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의 말 중에 군사기밀에 가깝거나 북한에 도움이 될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주제의 성격상 불가피할 것이란 생각도 들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예상, 특수 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 등의 민감한 부분은 위험스럽게 들렸고 우리 안보의 허술한 구석을 꼬집어내고 대북 정책의 실패를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는 모습은 국민의 불신을 자아내고 북한에서는 패재를 부를 내용으로 비치기도 했다. MBC와 비교해서 나름 진지한 토론 내용이었

었다.

그러나 토론 후반에 들어서는 정과에 따른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공과 문제 등에서 남남갈등과 정과싸움이 재연되리라는 불안감을 씻기 힘들게 만들었다. KBS의 심야토론은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을 다시 분다”라는 주제로 왕성한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12월4일 밤 11시 15분부터 방영되었다.

유기준 한나라당의원과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창권 국방연구원 실장 등이 참여했다.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비교적 진지하게 제작됐다는 시청소감이다.

다만 김용현 교수는 토론의 분위기 때문인지 핵심을 찌르는 말보다는 에둘러 표현하고 애써 얼버무리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패널들과 이견을 드러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우리군의 응징과 관련해서 “과도한 억제 능력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자 사회자가 그제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따지듯이 묻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에서 방송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에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각 방송사마다 내용과 제작에 차이는 있었지만 전쟁과 민족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형국에서 서둘러 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방과 안보 기밀에 관한 문제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등이 보다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말미에 새해 방송에 거는 기대를 덧붙인다. 방송이 추구할 궁극의 가치는 국민민복(國民民福)과 위국헌신(爲國獻身)일 것이다. 새해에는 특정 정파나 계층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 역사에 떳떳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시청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4]

6면에서 이어집니다.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해상침투무력이나, 연평도를 때린 북한해안포는 멀정하게 살아있으며 이것들이 또 언제쯤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른다. 천안함을 격침당한 해군의 말이 안 되는 응전태세, 연평도를 포격당한 우리 군의 방어력이 지휘관 교체정도로 과연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북한이 핵무기 운운하며 강한 무력도발을 해 오는 경우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준비해온 북한의 후방침투세력이 작동하는 경우 이것을 조기에 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20일 행한 연평도 포격훈련은 훈련이었을 뿐 이 훈련이 북한의 해상침투력이나 해안포대를 1점이라도

손상시킨 것은 아니며 이 훈련으로 북한의 대남공격의지가 약해졌다고 보지는 못한다. 오랫동안 학계에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관찰해온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방사포이동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자자기탄(EMP)을 쏘 우리의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수시로 교란시키는 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허망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현재의 한국군으로는 전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북한으로 건너간 달려가 핵무기를 만들고 전신통신망을 구리선에서 광(光)케이블로 바꾸고, 위성항법 교란장비를 들여오고 전자자기탄을 개발하는 등 최신과학군대로

탈바꿈 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북한을 주적(主敵)개념에서 지우고 병력도 줄이고 북무기간도 단축하면서 부지런히 국방의 성벽을 허무는 허망한 행동을 해왔다. 이런 반(反)국방행위추세가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의 핵무기선언을 비롯한 연속적인 군사공격이 가해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김일성출생 1백주년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남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게 모르게 전파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30배도 넘고 40배도 넘기 때문에 감히 북한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는 군의 사기를 죽이려는 반역적 행위에 속한다. 30배도 넘고 40배도 넘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배 4배의 국방력은 신속히 갖춰야 한다. 2차 대전시의 영국처럼 급하면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려오기라도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국제적인 국가이다. GNP의 83%가 국제무역에서 생성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 만이 아니며 따라서 긴밀한 국제관계를 통해 이런 국방태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리 있는 국민도 없고 올바른 정부도 없으면서 오직 군사독재권력만 있는 북한강제정권을 두려워하거나 알파서는 안 된다. 연평도 포격훈련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나 알보는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가 되어 정부의 과감하고도 신속한 응전태세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MBC 경제살리기 캠페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MBC

보험광고와 꿀불전 아나운서

요즘 TV나 홈쇼핑에 보험광고가 넘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를 울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보험설계사들의 비행도 있고 또 보험사기 사건도 자주 일어나는 등 보험은 여러가지로 말이 많다. 그런데 얼마전 모TV 소비자 고발 시간에 “소비자 울리는 보험의 덫” “소비자 두번 울리는 보험” 등의 내용으로 보험사들을 맹렬히 고발한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신문쪽에서도 ‘물지마 식 실버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노인대상 실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골절·치매·화상·장기손상 등 모두보장, 80세까지 물지도 않고 가입가능, 나이불문·병력불문·직업불문·080 무료상담 번호로 전화할것을 유도하는 등” 실버보험 광고가 넘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 당하면 제대로 보상 못받는 사례중에는 깨알같은 약관을 꼼꼼히 못읽은 노인의 탓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나운서 몇몇 사람들이 TV에서 보험이 안전하다는 등의 상업

광고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방송사 측은 그분들은 프리랜서이지 방송사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방송사 아나운서 직으로 있었고 또 프리랜서인 그들이 자주 TV에서 아나운서 마이크를 쥐고 있다. 방송사 측에서는 그들을 프리랜서라고 딱잘라 말하지만 청취자들이 볼때는 그들은 아나운서였고 또 지금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하지 달리 생각지는 않을것 같다. 그런데 그들이 정식직원이든 무소속자든간에 수시로 TV에서 아나운서로 나타나고 또 보험선전 광고도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太平路에서



이선희

- 분회 회우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공정보도에 참여한 아나운서가 방송사에서 고발한 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를 해대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나운서와 PD가 “소비자 두번울리는 보험”이라고 고발을 해대는가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프리랜서라해도 내적으로만 정식직원이 아니지 마이크를 잡을때는 청

취자들이 틀림없는 아나운서로 볼 것이다. 요는 프리랜서가 된 사람에게 아나운서 역할을 못하게 한다면 다소의 문은 풀릴 것이나 보험광고를 해대다가 가끔 아나운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은 공정성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나운서 출신을 내세워야 소비자들로 부터 믿음을 살 것이고 아나운서 출신 역시 보험광고를 못한다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불러다가 아나운서 역할을 하게 하며 그것도 손가락질 받는 보험광고를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가 말이다. 정론을 펴고 공정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두 얼굴을 가진 아나운서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나운서가 모자란 다든가 또는 그들을 동정한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된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방송에서 보험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나운서 일을 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야 교육방송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도 생각된다. 하기가 유명 탤런트가 암보험 가입 권유 방송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통사람들이라면 다 돈생각이 날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면 돈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기자신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4]

老年期 겨울철 나기

겨울은 많은 노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계절이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쉽고 악화되기 쉬운 노인병으로 중풍, 고혈압과 골, 관절질환 등 매우 다양하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몇 가지 병과 낙상 예방에대해 알아본다.

◆뇌졸중(중풍)

증상 -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진다. 평소보다 운동량이 줄어 혈액 순환도 원활하지 못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는데 실제로 노인들의 뇌졸중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방 - 외출 시 보온(保溫)에 주의하고 집안에서 웅크리고 지내는 것보다는 낮 시간에 산책과 체조를 매일 하는 게 좋고 따뜻한 목욕을 자주 해 혈액순환을 돕도록 한다.

◆머리와 손발 체온보호

겨울엔 따뜻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감기나 독감을 이길수 있다. 특히 혈압환자, 심장병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보온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체온유지로는 내복을 입고 외출때는 반드시 방한장갑을 끼어 혹시 넘어져서 손을 못쓰는 상황을 예방한다. 그리고 가급적 모자를 쓴다. 인체의 열과 수분이 30% 이상 머리를 통해 나간다고하므로 모자만 써도 보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겨울철 최고의 패션 건강소품인 목도리를 꼭 두르도록 하고 마스크를 써 감기, 독감을 예방한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합병증이 우려되니 꼭 조이는 스타킹

건강수첩



이보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해설위원

이나 속옷바지를 피하고 헐렁한 옷을 입고 조이는 신발도 피한다. 그리고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통풍이 잘되는 옷을 겹겹이 입는게 좋다.

◆골, 관절질환

노인은 한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크다. 가벼운 찰과상부터 생명에 지장이있는 손상까지 다양하다. 앞으로 넘어지면 손목이나 팔꿈치, 무릎을 다치고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으면 대퇴골 골절과 엉덩이 관절(고관절)부상이나 허리부상으로 거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14~36%나 된다고 한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고관절의 90%, 노인골절의 87%가 낙상으로 일어난다. 또 동틀때 29.3%, 해질녘엔 22.4%가 가장 많이 넘어진다(보건복지가족부 통계).



겨울철엔 낙상사고가 가장 위험하다.

낙상은 관절과 근육의 힘이 부족해 발생하나 겨울철엔 눈길에 미끄러져 일어나는게 많다 (여름에도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다). 통계에서 보듯이 낙상은 주로 해질녘과 아침에 많이 일어난다. 아침과 저녁엔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라 조금만 주의해도 넘어지기 쉽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낙상사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해 관절의 운동력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예지만 매년 겨울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 다음으로 사망 및 질병사고가 많아 그 치료비와 보상비 만도 연간 18조원(부상시: 평균 2만8천달러, 사망시: 94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호주도 낙상사고가 매년 급증해 치료비등에 40억 달러가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지팡이와 신발건강과는 무관하나 노년기가 되면 특히 겨울철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선 지팡이는 노인에게는 연륜과 지혜의 상징이지만 무릎관절이 원활치 않은 노인에게 실족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도구이다. 제 3의 다리로서 큰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 지팡이는 선물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젠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팡이라고 할 수 있다. 빙판이나 보도블록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위해 끝에 고무패킹을 한 지팡이가 좋다. 또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어 실내에서 발생하는 낙상도 예방하는게 좋다. 지팡이는 호신용으로도 좋다. 미국 플로리다에있는 태권도장에서는 미국노인들이 지팡이 호신술(케인푸)을 배우기도 한다. 다음으로 신발을 보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된 뒷굽이 낮고 폭이 넓은 신발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제이스텝’이란 업체에서 얼음에 전혀 미끄러지지않는 신발밑창을 개발해 시판을 앞두고 있다. 여담이지만 의학연구자들은 얼음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북극곰 발바닥을 조사했더니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표면이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런 구조가 미끄러운 바닥에 꼭 붙어있는데 가장 좋다는 것이다. [4]

나이 잊은 등산...녹슬지 않은 펜... ‘人生’

“실버파이팅에 나가면 늙은이 취급당하는 것 아닌가”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고 池龍雨(79) 본회 논설주간 겸 편집고문에게 전화 드렸더니 돌아온 첫 마디다. 등산으로 호연지기를 다지고, ‘녹슬지 않는 펜’으로 정론을 펴는 금지가 돋보인다. 지난달 20일 저녁, 마포의 한 중국집에서 반주를 곁들이며 치열하게 살아 온 삶의 긴 여정을 들었다. 올해 우리 나이로 팔순이 믿어지지 않는 童顏에 카랑카랑한 목소리에서 ‘늘 푸른 청춘’의 기개를 느낀다.

왕성한 집필 ‘늘 푸른 청춘’

-아직도 왕성하게 집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언필칭 신문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창한 칭호보다는 평소 ‘사회의 소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소금은 조미료의 차원을 넘어 정권과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상징하지요.”현역 은퇴 후에도 ‘쟁이 근성’은 여전하다.

요즘도 인터넷 신문인 ‘뉴스 앤 피플’ 논설주간으로 시론을 집필하고 본지에도 핫 이슈 때면 어김없이 목소리를 낸다. 일그러진 한국정치풍토를 질타하고, 북의 연평도 전쟁도박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분노하며, 국가관과 정체성이 의심되는 진보와 종북 좌파를 준엄하게 꾸짖는다. 젊은 후배들과 대작을 해도 2, 3차를 마다 않는 주량을 과시한다.

-신문기자 출발은 다소 늦었지요?

“대학(경희대 영문과) 졸업 후 2세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편을 잡았어요. 그 뒤 학원 영어강사로 자리를 옮겼고 약수동에 문을 연 KEI 영어학원의 대표강사로 한때는 ‘스타강사’ 소리도 들었지만 ‘훈장생활’에 단조로움을 느껴 뒤늦게 경향신문 공채기자시험을 치고 입사(수습5기)했지요. 그 나이 이미 서른 살로 연령제한 턱걸이로 합격한 셈이죠. 동기생 5명 가운데 崔상원(73) 본회 회우와 두 사람만 생존해있습니다.” 신문기자로 인생의 닳을 내린 그는 “신문기자의 자유분방함과 비리고발의 통쾌함, 권력의 批政과 맞서 싸우는 용기”에 매료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한다. 입사 후 주로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제2사회부장을 거쳐 논설위원과 논설실장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났다. 언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1991년)과 경희언론문화인상(2002년)을 수상했다.

-경향신문 역사상 최장기 논설위원의 기록을 갱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6년 동안 북치고(사설 쓰고), 장구치고(餘滴 쓰고), 춤도 추는(매일 쓰는 신문고) 1인3역을 꽤 안 부리고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는 논설실장시절 3면에 ‘池龍雨 時評’을 3년 동안 매주 거르지 않고 연재한 것도 “생애 최대의 보람이었다”고 강조한다.

-경향신문 간판 칼럼 ‘餘滴’을 가장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0>

회우초대석

지용우

인터뷰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 한)

많이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단문칼럼인 여적의 묘미는 寸鐵殺人の 시니시즘에 있다고 하겠지요. 그 짧은 글 속에다 역설과 반어, 은유법과 직유, 의인법과 도치법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맛을 내야하고 문장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 머리를 써야하니 사실 쓰기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사실을 잘 쓰는 논설위원도 ‘여적’을 쓰려면 찢쩍 매기도하고,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은 논리전개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적인 접근으로 저널리즘의 맛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한다. 단평 칼럼 ‘餘滴’은 자유당 정권의 비위를 건드려 1959년 경향신문 폐간을 부른 문제의 명 칼럼난이다. 요즘은 기명이지만 당시에는 무기명으로 집필했다.

-정년퇴임 후 정계에도 잠시 몸담았었지요?

“허허. 별걸 다 기억하시는군요. 퇴직 후 촉탁논설위원으로 일하던 1991년 5월이었어요. 30~40대 젊은이 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해 “왕 회장(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한다”는 말과 함께 메모쪽지를 전해주고 갔어요.” ‘긴히 상의 할 일이 있으니 계동 현대 본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재



등산과 왕성한 집필로 인생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지용우 본회 논설

교편잡다 언론계로...寸鐵殺人の 칼럼으로 정 6·25 참전 죽을 고비 넘겨...등산학교 최고령 수

벌그룹 총수가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 궁금증을 갖고 회장 사무실을 찾았다. 첫 대면에 왕 회장은 “지용우 위원님, 우리 함께 일 좀 해봅시다”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매일 나오셔서 각종 자료나 검토하시고 신문 읽고 글이나 쓰면 됩니다.”

그로부터 세금 없는 월급을 수백만 원씩 받고 정주영 회장과 몇몇 임원들 틈에 끼어 점심을 함께하며 소일하다 마침내 ‘쓰임새(용도)’를 알게되었다. 1992년 1월 ‘통일국민당’이 창당되었고, 영검결에 원치도 않은 창당조직에 끼어 들게 됐다. 당내직위는 홍보분과 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이었다. 선거전략 회의에 참여하고 자극적인 선거구호도 만들어 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중했던 일은 주~월간으로 발간된 ‘국민당보’의 黨說을 쓰는 일이었다. 결국 국민당은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1명의 당선자(지역구 24명, 전국구 7명)를 냈

다. 이를 바탕으로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후보는 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선전했지만 3위에 그쳐 ‘경제대통령의 꿈’을 접어야했다. 당시 지용우 부위원장의 전국구 후보 순위는 24번이었는데, 정주영씨의 낙선으로 7번(텔런트 강부자)까지만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지용우 선배의 아호는 ‘靑石’이다. 푸른 빛깔을 띤 응회암처럼 강직함이 엿보인다. 성격은?

외유내강의 원리원칙주의자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불같은 성격도 세월과 함께 많이 마모되지 않았나 싶다(웃음). 고회를 맞아 출간한 지용우 칼럼집 ‘시대의 증언’에서 具宗書 박사(정치학)는 “지 선배는 공사가 분명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면서도 친화력도 빼어나다”고 평가하면서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소개했다. 1970년대 초 국방부 기자단이 미 태평양사령부 초청으로 일본



밴쿠버 그라우스 산 정상에서 외손자와 함께. (2009년 6월)

자위대 군사시설을 둘러 볼 때다. 높이 200m 낙하산 훈련용 철탑 앞에서 일본군 장교가 브리핑을 하면서 농담 삼아 “철탑 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 보실 분 없나요”하니 “지 선배가 선뜻 자원하여

人生노을' 물들인다

지용우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 전 경향신문 사우회장
· 뉴스앤 피플 논설주간(현)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용우 본회 논설주간.

로 정론 펼쳐 고령 수료 기록



2009년 6월)

고공체험을 즐기듯 올라가는 걸보고 놀랐다"고 한다.
‘최종학력’ 코오롱등산학교
池 주간의 도전정신과 승부근성은 정년퇴직 후 등산 마니아가 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공대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가 되어 ‘화백(화려한 백수)’들은 지하철 타고 온천장에 가고, ‘불백(불쌍한 백수)’들은 종묘공원에 가는 65세 때 코오롱 등산학교를 노크했다. 규정상 50세 이상은 정규 산악반에 등록이 안 된다고 하여 ‘예비반’에 가입했다. 독도법 등 기초이론을 배운 뒤 20~30대 젊은이들과 함께 20kg이 넘는 배낭을 짊어지고 산악훈련을 하고 바위벽을 기어오르는 암벽등반을 했다. 4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북한산 노적봉에서 ‘졸업등반’을 하던 날, 다른 팀의 남녀 한 쌍이 강풍에 자일이 엉켜 대통령 매달린 채 동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돈키호테 같은 모험이 아닌

가” 후회하기도 했다는 것. 꽤 부리지 않고 젊은이들과 똑 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 본 등산학교장은 제26기 정규반 코스 수료증을 주었고, 개교 후 최고령 학생의 기록을 깼다.

-뒤늦게 등산 마니아가 된 이유는?
“첫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두 번 째는 마감시간에 쫓기듯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산이 좋기 때문 이다”고 말한다. 등산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비지땀을 흘린 뒤 정상에 오르는 짜릿한 쾌감과, 산행 후 마음이 통하는 ‘산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뒤편이를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 그는 경향OB산악회장을 지냈으며 요즘도 매월 정기산행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또한 경향신문사우회장을 연임하며 결속력과 친화력을 과시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산행은?
“국내산은 백두대간 종주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두루 다녔어요.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단의 키나발루 산(4,101m)은 물론 일본의 ‘북 알프스’라고 하는 다테야마 오난 지야마(3,015m),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도 올랐 습니다. 중국의 오악 중 선경이라 불리는 황산 트레킹과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가장 높은 그라우스산(1,231m)을 사위 손자 등과 트레킹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6·25참전 휴대폰 번호 0625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본회 ‘6·25참전언론인동우회’ 산파역을 맡았었지요?

“지난해 6월25일 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7·27정전협정 57주년이 되던 날인 7월27일 ‘6·25참전언론인동우회(회장 이해복)’를 발족시켰습니다. 모임의 간사를 맡아 심부름을 했지요.” 참전용사 동우회원은 6·25참전용사와 종군기자 등 본회 회원 42명이다. 창립총회에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규탄하고, 국가안보관 확립과 국민의식개혁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6·25참전을 잊을 수 없다”며 휴대전화 끝 번호도 ‘0625’로 선택했다.

-6·25참전 땀 학도병이었나요?
“6·25참전은 극적인 동기로 이뤄졌어요. 38선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진 그 날 오전 대동청년단에서 저희 형(지용순)을 찾아왔어요. 여덟 살 위인 형님은 외출중이었고, 다음 날 다시 찾아왔을 때도 형님이 없다고 하자 그럼 동생이라도 대신 왔다가 가라고 해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것이 가족과의 이별이었고, 6·25전쟁 최대격전지인 낙동강전투에 투입되어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게 됐다.계급장도 없는 급조된 군인이 되어 서울역에서 석탄 무개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수원. 6월 27일 특공대를 조직한다기에 손을 들었다. 북한 탱크가 밀어닥치면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 파괴하는 ‘육단용사’다. 모의폭탄을 들고 탱크에 부딪치는 훈련을 되풀이했다. 포성은 수원까지 들렸고, 무개차에 실려 다시 남하했다. 7월

辛卯年 새해詩

연평도여! 네 이름의 운명처럼

1
북으로 가지 못하면 섬, 남한은
마음은 해마다 북으로 달리고
달리다 멈춰 선 서해의 연평도(延坪島)여!
네 전선(戰線)의 꿈이 너를 슬프게
하였구나!

슬퍼하지 말라, 연평도여!
이제 울음을 멈추어라.
새해 신묘년(辛卯年)의 일출을 보라.
사나운 파도는 스스로 재물에 잠들
리.

지금 일어나는 작은 불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작은 불꽃
아, 용사들의 희생 위에
우린 통일에의 꿈을, 꽃을 피우리다.

연평도여! 네 이름의 운명처럼
갈라진 섬의 땅을 잇게 하라.
네 희생으로 통일에의 꿈을 받들게
하라.
우리 마음에 철옹성(鐵叢城)의 진지(鎭地)를 짓게 하라.

2
우린 지난 반세기동안 달리고 달렸
다.
세계 20클럽 가입, 10위의 경제대국

을 이루었다.
절해고도의 섬의 운명이 오대양 육대
주로 나아가게 한 개척의 반세기
여!

거짓통일로 백성을 굶겨죽이고 유랑
케 한 자들은
이제 단말마의 발악으로 자신의 운명
을 두려워하나니.
한 민족 한 형제를 겨누 천인공노(天
人共怒)의 포심(砲心)은
스스로의 운명을 재촉하는 신호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치듯이
내리리니
우린 허둥대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하
나니.
발해(渤海)만에서 시작한 문명은 다
시 우리에게 뜻을 맡겼다.
5천년 신(新) 문명을 일으키려니 잠
들 수 없는 서해여!
이제 문예부흥을 이루어 다시 한민족
웅비를 꿈꾸자.
지금 일어나는 작은 분란은 통일을
위한 담금질
북으로 가지 못하면 섬, 휴전선은 노
도 치는 바다
오대양 육대주로 나아가듯 이제 통일
로 나아가리.



박정진 · 본보 편집위원 · 시인

1992년 ‘현대시’로 등단, 2008년 독도박물관에 독도시비 세움. ‘한강교향시’ 등 7 권의 시집을 냄.

에 접어들면서 대전 신병교육대에서 목총 대신 M1소총을 지급 받아 본격적인 전투훈련을 받았다. 당시 “탈영한 신병 2명이 잡혀와 감나무 아래서 즉결처분 당하던 끔찍한 장면은 지울 수 없는 악몽이었다”며 몸서리치듯 눈을 감는다. 義城전투를 거쳐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면서 군번 없는 무명용사에서 9200831라는 군번을 받고 수도사단 1연대 1대대 1중대 소속 정규 군인이 됐다고 한다.

-多富洞 전투, 浦項전투와 함께 6·25 3대 격전지로 알려진 安康전투에 참전할 당시는...?

“화력이 총 동원된 전투였고, 적과 아군이 뒤섞여 총검으로 백병전을 치르던 원시적 전투였지요. 심지어 미 공군기가 용단폭탄을 퍼붓는 死地였어요.” 낙동강 전투에서 3일만 버티면 고참이 될 정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보름동안 밀리고 당기는 전투에서 전사자와 중상자만 1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8월 12일 낮, 빗발치는 彈雨 속에서 옆구리에 총탄을 맞았다. “하반신에 유혈이 낭자하여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경주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3일만에 깨어났다. 3만여 학도의용군이 참여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피로 지켰으나 복진하는 대열에는 끼지 못했다. 1951년 1월 12일 부산 389부대에서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장군의 직인이 선명한 대한민국 제1차 명예제대증서를 받고 전역했다. 그의 참전기는 생생한 한편의 전쟁드라마다. “빗발치는 탄우 속에서 살아났으니 그때 죽었다고 치면 잉여인생을 살아온 셈”이라며 웃는다. 참전 이후 “매사에 담대해졌고, 공부도 전투적으로 했다”고 털어놓는다.

-살아 온 삶의 여정에 후회는 없는가?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았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쓰고, 달고, 시고, 짧고, 짠 인생의 맛을 겪었다는 池 주간은 ‘인생의 노을도 아름답다’는 자작시 한편을 건네준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의 노을을 황홀하게 물들이자’는 리얼리티가 묻어나는 시다. “늘 곁에서 내조 해주 고맙다”는 부인 孫惠禎(65)여사 사이에 외동딸 裕卿(36), 사위 崔元昌(43)씨는 사업가로 국내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업을 하다 4년 전에 귀국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는 즐거움도 크다며 웃는다. [P]

2011 기상도 전문가 예측을 읽어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6.1%까지 추정했지만 올해는 4.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3.8%, 하반기에 5.0% 성장해 上低下高의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재정부는 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일자리 등에 조기집행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KDI를 비롯한 민간연구소는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흐림이 지역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증시의 경우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최고 25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증권시장 전망

-대내외적으로 펀더멘털이 호조되면서 코스피가 3년 만에 2000선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마다 예상고점을 2500선 내외로 조정하고 있다. 외국인도 여전히 왕성한 식욕으로 주식과 펀드 시장에서 상승랠리를 이끌 전망인데 투자자들은 종목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나뉘어 클때 대형우량주에 투자하라고 권고하는가 하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올해 투자대상 가운데 가장 유망할것이라고 전망하는 재테크 전문가들도 있다.

#16개 증권사들이 꼽은 2011년 투자유망종목 추천 증권사 수

삼성전자 10곳 (IT경기 회복, 갤럭시S와 갤럭시탭 출시 등으로 애플과 함께 모바일 혁명을 주도할 가능성)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9곳 (최근 신규로 2기 고로 준공, 해양선과 특수선 수주가 증가) .KT 8곳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롯데쇼핑,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7곳. .기아자동차, SK에너지, KB금융, 하이닉스 6곳/ S-Oil,엔씨소프트, LG화학, 한진해운 5곳.

#2010년 증권사 추천 유망종목 중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기아차 157%, 현대중공업 144%, GS 100%, 삼성엔지니어링 83%, 현대모비스 79%.자료(2010.12/15 종가 기준, 조선경제 우고운 기자)

老後설계와 재테크②

2) 2010년 펀드 시장 기록 '덕서리 펀드'는 연초 이후

2010 12월13일 기준 평균 수익률이 40.16%를 기록 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소비가 2009년보다 증가했고 선진국의 경기침체에도 빠르게 경기를 회복한 신흥 국내의 명품 소비 급증도 한몫을 했다. 2011년에도 이름값을 할 것인지 기대된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불과 16.70%였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7.80%를 나타냈는데 해외펀드 중에는 신흥아시아펀드가 30.12%, 인도펀드는 20%였다. 국내주식형펀드 중에는 금 펀드와 삼성그룹주 펀드가 각각 25.16%, 25.13%로 뒤를 이었다.

3)예적금

전체 금융자산의 40~60%는 정기에금 등에 안전하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관련 상품에 공격적 투자도 고려해 본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2011년에 주식이나 펀드가 가장 유망하다고 하지만, 전체 자산 중에 안전하게 예·적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자산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수도 있다.

#개인별 세금우대한도

①생계형예금: 전금융기관 통틀어 3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 전액이 면제된다. 가입대상자는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제환자, 5·18관련 부상자, 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권자. ②비과세예금: 3000만원까지 만 20세 이상 자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인 경우, 농특세 1.4%만 과세한다. 가입은행은 농·



홍용수

-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 NSI자산관리 연구회 회장
- 한양대 겸임 교수

수·축·임·협·신협·새마을금고인데만 60세 이상은 위생계형예금과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세금우대예금: 만 60세이상은 3000만원, 만 20세이상 60세미만은 1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 9.5%만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봉급이나 월세 등을 받는 저축통장은 연간 이자가 거의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는 적금 등에 가입하거나 MMF 또는 CMA통장으로 빨리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재테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2011년 금융자산 투자 포트폴리오

예)현명한 포트폴리오는 시기에 따라 분산전략을 잘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1억원: 정기에금(5000만원), 국내주식펀드(2000만원),신흥시장주식펀드(1000만원),원자재펀드(1000만원),유동자금(MMF등 1000만원), 5000만원:국내주식펀드(2000만원),정기에금(1500만원),해외채권펀드(1000만원),유동자금(500만원), 2000만원:정기에금(1000만원),주식형펀드(500만원),ELF(300만원),유동자금(200만원).

5)저축은행 거래시는 먼저 BIS 8%이상 / 고정이하 여신 8%미만 확인 필요

금융당국이 최근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 105개를 자산건전성 심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8개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국회 정부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 했다. 그러나 8개 저축은행이 모조리 파산할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이다.

이미 저축은행에 예금한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경기가 치솟을 때인 2000년대 중반부터 건물을 짓기 이전인 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늘려 대출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을만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방법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폐일 열려가 있는 외상채권) 비율 8%미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편이 안전하다.

6)부동산 시장 살리기 규제완화 2011년에도 계속

국토해양부는 전국 땅값이 연속 폭락하고 거래량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서울시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2408km(약 7억 3000만평)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사고 팔수 있게 되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DTI규제 등 한시적 폐지 기한도 연장될 확률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지난해와 같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2011년 아파트 입주물량 10년만에 최저, 지역에 따라 상승 우려

부동산 114에 의하면 201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19만가구로 지난 10년 간 최소 물량으로 지난해 29만가구에 비하면 35%가 감소되어 아파트값 상승 및 전세값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2011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11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과 수도권이 2.5%, 전국적으로는 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독주택 등은 1.5% 내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은 신규물량 공급 부족과 비관적인 매매가격 전망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로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은 5%, 수도권과 지방은 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아주경제 유희석, 이해림 기자) [4]

국론분열 더이상 안된다

“우리 혁명 무력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한계 없는 우리 혁명 무력의 2차 3차 강위력한 대응 타격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분거지를 청산하는 데로 이어질 것”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주로 기습 공격을 해왔다”며 “이번 훈련처럼 우리가 민반의 준비를 했고 미군과 유엔사까지 참관한 상태에선 도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연평도 포격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내부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했고, 외교적으로

로 중국뿐 아니라 다소 소원했던 러시아의 지지를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남한에는 전쟁공포를 심어주면서 ‘남남갈등’의 골을 더 깊게 줬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 전야로 내몰고 있다”고 했는데 노동신문도 “미국이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연평도 공격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時 論



천상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 경시대 초빙교수

분쟁 지역화하는데 이미 성공했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가 37년간 해온 NLL 훈련을 유엔 안보리가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국론분열 사례를 살펴보자. 민주당은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함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경기 의정부에서 당초 일정에 없었던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를 열고 대북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사격감행은 예산 날치기와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이번 훈련이 예산정국을 덮기 위한 카드란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격훈련이 끝나자마자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은 공멸을 자초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이명박 정부와 미국 당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3면으로 이어집니다.

치매예방 오는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나 (下)

치매가 오는 것이 보이나? 보인다. 치매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병증(病症)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발소리를 죽여 가며 좀도둑 다가오듯이 오므로 “네 이놈” 할 수는 없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릴 수는 있다.

단지 그것이 나이 탓으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인지 뇌혈관성인지, 알츠하이머 인지능을 가늠하는 것은 전문가(의사)몹이다. 그러나 수상한 짓은 자신보다는 가족이 눈치챌 수있다. 성격이 변한다. 그렇지 않던 사람이, 너그럽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화를 베풀 같이 내고 밝던 사람이 어두워져서 우울증을 띠게 되면 수상하다.

먹성이 변한다고 한다. 손자 용으로 사농은 스낵류를 한 봉지 다 먹어 치우고 바나나를 네댓개 다 먹어버리곤 안먹었다고 잡아떼면 수상하다. 자주 다니던 골목길이 헛갈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수상하다. 양말을 짝짝이 짝 짝 짝로 챙겨 신으면 수상하다. 옷도 마찬가지다. 늘 전화를 주고받던 친구더러 “당신 누구요?”하면 치매가 왔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먹통이 되면 수상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병

증을 목격한 가족이 치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상한 여러가지 낌새가 나타나면 전문의와 의논할 일이다.

치매증상을 판별하는 항목은 많다. 실서(失書)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쓰버릇하던 사람이 오자(誤字)를 자주 쓰면 의심스럽다. 내 경우엔 일상으로 글을 쓰는데도 전에 없던 오자가 더러 나타난다. 그것도 한자(漢字)는 완벽하데, 한글에서 트집이 난다. 맞춤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틀린 맞춤법을 쓰게 된다.

두서너자 정도는 관용범위안에 들것으로 자위하지만 더러 찢찢하다. 실행(失行)은 전에 안하던 짓을 말한다. 치매증상중에 방황이 꼽힌다. 제 있는 곳을 제 집으로 알고서는 아무데고 턱도 없이 먼곳에 가서 헤매게 된다고 한다.

슈퍼에 뭘 사러간다고 간 사람이 엉뚱한데 가 있다든지, 슈퍼에 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판물건을 왕창 사오면 이 또한 실행이다. 실산(失算)도 있다. 셈을 못하게 된다. 100에서 계속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③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7을 빼라고 할때 이게 안되면 실산이다. 거스름돈 계산이 안된다면 이또한 실산이다. 실언(失言)도 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멀쩡한 실언자가 많다. 그건 치매가 아니고도 실언하는 경우이지만 남의 아내더러 “여보!”하면 실언일까, 아닐까? 아무튼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는

이면 자율신경이 편안해진다는 설(設)도 있다.

일본의 저명한 대뇌생리학자 오지마 기요시(大島清)는 치매예방에 손과 발, 그리고 턱을 든다. 손을 드는 것은 손가락을 일상으로 쓰는 서예가가 장수직종에 든다는 이야기와 궤(軌)가 같다. 턱을 드는 것은 많이 씹는 일이 뇌의 활성화와 관계있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적이다.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생존을 시작한지 3억년. 장구한 세월에 걸쳐 극심한 기후변화와 생존의 시련을 견디면서 획득한 탁월한 생명유지 기능에 주목한 것은 독일의 ‘슈와베’ (Schwabe) 제약회사다. 독일에선 은행잎 추출물인 ‘테보닌’이 전 약품 중에서 매상고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도 매상고 1위. 한국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민, 기넥센 등이 의사의 처방없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팔리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처방없이 살수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의사 처방약품이다. 은행잎추출물을 흔히 혈류개선제로만 알고 있지만 치매예방약이기도 하다. 내가 5년 이상 기넥센을 복용한 결과 효과가있다. 혈압이나 당뇨 약은 아니지만 그쪽으로도 효과가있다. 나 이와 함께 치매가 오는 것은 뇌속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달걀 노른자위의 콜린과 비타민 B12를 섭취하면 뇌속에 아세틸콜린이 불어난다는 일본의 치매예방과 정신질환 전문가의 연구

서적을 읽고 실험삼아 3개월째 복용해 보니 확실히 효과가 있다.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루 1개의 달걀이 겁날 것도 없다싶어 실행한 것이다. 못말리는 호기심도 치매예방에 효과 있을 것인 즉 해볼만한 일이다. B12의 하루 섭취량은 500mcg. 당(唐)때 손사막(孫思邈)이 엮은 천금방(千金方)에 고치법(叩齒法)이 등장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명상한 다음 아래 위 이빨을 딱딱 마주치기를 서른여섯번, “백맥(百脈)이 화통하고, 백병이 사라지며, 잇병은 영영 없어진다” 청(淸)의 6대 황제인 건륭(乾隆)이 양생법으로 고치법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중국의 제왕 중에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아 89세의 수(壽)를 누린 장수황제다. 오래 살아서 늙어, 치매 걸려 죽는게 소리라는 일본 의사가 있지만 끔찍하다. 맑은 두뇌로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이겠지

많이 걷기 · 은행잎 추출물 복용 큰 효과

항목은 많지만 판정은 전문가(의사)가 할일이므로 세세하게 챙길건 없을것 같다. 오는 치매를 막을 수 있나? 웬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게 의학의 답이다. 첫째 많이 걸을 일이다. 인류가 침팬지처럼 네발로 기어다닐때의 뇌 무게는 450g정도. 아프리카 초원이 시원(始原)의 땅이라는 인류가 두발로 일어서서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뇌의 진화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직립보행(直立步行)이 뇌진화의 시발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뇌의 무게는 3배로 불어나서 대충 1350g 정도. 인류문화를 창조한 뇌의 진화는 걷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걸으면 허벅지의 대퇴근(大腿筋)과 배의 복근(腹筋)이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발은 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부위다. 만족(滿足)스럽다. 풍족(豐足)하다. 유족(裕足)하다. 그것으로 족(足)하다. 모두 발 족(足)자다. 인체라는 구조물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발이다. 뼈에 붙어있는 평문근(平紋筋)을 움직

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치매 전문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환자의 남아있는 평균 이빨이 다섯개 미만이라는 사실이 치매와 씹는 일의 관련설을 말해준다. 일단 치매로 확정 진단이 되면 그 다음은 정신과(뇌과학)의사의 몫이므로 끼어들 여지가 없다. 미국에서 쓰이는 치매치료약 ‘타크론’이나 일본에서 쓰이던 ‘아리세프트’는 두가지 다 치명적인 부작용(간장애) 때문에 거의 폐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미병(未病)상태일 때 손을 쓰는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수칙 10개항을 들면 ①염분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 균형있는 식사 ②적당한 운동 ③담배 끊고 술은 조금, 규칙적인 생활 ④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예방 ⑤자빠지지 말도록 ⑥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⑦생각을 마무리해서 표현하는 습관을 ⑧민감하고 평화의 인간관계 ⑨언제나 젊게, 땀에 신경을 ⑩언제나 밝게 생활수칙 10개항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2면에서 이어집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상 사격훈련은 사실상 미국이 지휘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하는 것이냐” 고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정전협정에는 서해 5도의 해상분계선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한국이 주장하는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으로, 남북이 주장하는 분계선이 다르다”고 해 연평도 앞바다가 남북간 ‘분쟁수역’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쏟아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당회의에서 “민주당 등은 우리군의 훈련 재개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는 비겁한 패배주의” 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바로 이런 전쟁 공포증을 노리고 협박하는 것인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패배주의는 무력도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는 것이며, 사격훈련 중단요구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치지도자라면 나약한 패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했다. 박선

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사격훈련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NLL을 수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은 우리 국론이 분열 뒤흔들 때 우리를 넘본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국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이 연평도 사격 훈련에 찬반으로 갈려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지금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이 국가적 단합을 이뤄낼 비상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보 비상을 넘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해온 세력들,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적의 위장된 평화를 대변하는 세력들, 그리고 반미 친북 종북세력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선 국론분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새해 소망 퇴직 언론인 활동 공간을...

가을의 끝자락인 지난해 말 대한언론인회 회원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프레스 클럽 회원 90여명이 충남 부여로 문화 탐방길을 떠났다. 때는 늦가을이라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했다. 처음 들른 곳이 부소산성... 백제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굽어보면서 회원 일행은 삼천궁녀가 꽃잎처럼 뛰어 내렸다는 낙화암에 도착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가리고 있는 나뭇잎 틈새로 조각조각 보이는 백마강의 짙푸른 강물에는 그늘이 묻어나 있었다. 이는 처연한 느낌을 주었는데 아마도 백마강을 떠도는 백제의 고혼(古魂)들이 부르는 슬픈 영혼의 노래가 바람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에 섞여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했다. 낙화암을 지나 천년 고찰 고란사를 둘러보고 백마강에 띄워져 있는 관광선(船)황포돛배를 탔다. 일행이 배를 타자마자 선상에서는 '백마강의 노래'가 구슬피 흘러나온다. 날씨는 흐리고 쓸쓸년스러워 분위기는 한층 무거웠다. 낙화암에 얹힌 비운의 사연과 백마강의 역사 그리고 백제의 멸망까지를 배경음악과 함께 자세히 해설사는 설명을 하며 배는 떠난다. "백마강에 고요한 달밤아 고란사의 종소리가 들리어 오면"하고 노래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우리 일행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힘없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 배에 탄 일행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다함께 노래를 한다.

鳥啼月夜白馬江,,(조제월야백마강)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可惜忘失三千裳,,(가석망실삼천상)
잃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司工運一葉片舟,,(사공운일엽편주)
저어라 사공아 일엽편주 두동실
落花陰下欲淚放,,(낙화음하욕루방)
낙화암 그늘에서 울어나보자"
阜蘭寺鐘鳴透臟,,(고란사종명투장)
"고란사 종소리 사무치면은
裂散散九曲肝腸,,(열산산구곡간장)

구곡간장 울음이 찢어지는 듯

誰得知白馬江嘆,,(수득지백마강탄) 그 누가 알리오 백마강 탄식을
落花岩月色無常,,(낙화암월색무상) 낙화암 달빛만 옛날 같구나"

그때의 풍경은 비단 삼천궁녀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마치 퇴직 언론인들이 자기 자신을 비유해 노래하는 것 처럼 애달퍼 보였다. 회원들은 한창 젊었을 때는 부러울 것 없이 바쁜 현장을 뛰었지만 이제는 한낱 늦가을에



김 휴 선
· 본회 회우
· 전 MBC 보도국부장
· 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위원

로 등록돼 있고 이를 다시 '일본 프레스센터빌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자 클럽은 회원사가 투자해서 나온 배당금과 사무실임대료 그리고 부대시설의 임대료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원은 2,800여명 가량되며, 현역 기자들이 대부분이

물러나면 말이 아니다. 사회 다른 분야는 교육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이다 군인연금이다 해서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 되고 있는 반면 퇴직 기자들은 노후 보장이 전혀 돼있지 않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퇴직 기자 중에는 교통비(버스)가 없어서 시내를 못 나온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몇 달 전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이병대 부회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부부동반으로 20여명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 부회장 부부만을 빼고 일행이 다 교육자 부부였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연금을 합하면 돈을 쓰고도 남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두 부부교사는 정년을 했으니 교감이나 교장정도에서 퇴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당 한 달에 3백만~4백만원의 연금은 받지 않나 생각된다. 남의 돈을 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쓰고도 남는다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언론계는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많지 않다. 또 일본처럼 퇴직 언론인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도 없다. 언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야 대한언론인회 사무실과 관훈클럽 그리고 언론인 연구실 정도인데 그나마 회원이 아니면 출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도 10여명이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이밖에도 커피숍이나 식당같은 곳도 프레스 클럽 가입자에 한해서 약간의 할인은 되지만 신라호텔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 퇴직 언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이제 경인(庚寅)년 목은 해를 보내고 신묘(辛卯)년 새해를 맞았다. 퇴직 언론인들의 새해 꿈이라면 일본과 같은 프레스 클럽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새해부터 퇴직언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쉼터)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우리 퇴직 언론인들도 새해 희망을 갖게끔... 

日本과 같은 프레스클럽을 원한다

잡초처럼 시들어가는 노년(老年)의 자기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른다. 분위기는 숙연했다. 배가 선착장에 다다를 때는 웬지 하나같이 시무룩한 표정들이었다. 초로인생이란 말처럼 퇴직 언론인들도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처지였는지도 모른다. 일행은 각자 미리 대기한 버스에 나누어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다. 점심을 들면서 곁들인 소주 몇 잔에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 마치 자기 심정을 노래한 듯 했다. 우리나라 퇴직 언론인(기자)은 출잡이 2천명이 넘을성 싶다. 물론 이들 중에는 아직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퇴직 언론인들의 하나같은 새해 소망은 마음 놓고 활동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기자 클럽(Japan National Press Club)처럼 그런 클럽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일본 프레스(기자) 클럽은 신문협회 산하 150여개의 신문·방송·통신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회원사

고, 은퇴 기자들은 800여명이라고 하는데 주로 퇴직 기자들이 프레스 클럽을 이용한다. 일본 프레스 클럽은 언론인들이 필요한 온갖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언론인들의 필수적인 집필실은 물론 연구실, 담화실, 컴퓨터실, 독서실, 장구나 바둑을 둘 수 있는 취미실까지 마련 돼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슈(issue)에 따라서 기자회견이나 강연회, 토론회도 갖는다. 그리고 언론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물론 커피를 싼 값에 마실 수 있는 다방 등 휴게실도 마련돼 있어 언론인들의 필요한 공간은 다 갖춘 셈이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와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몇몇 퇴직기자들을 초청, 초·중·고등학교 NIE교육을 실시하여 일거리를 만들어 주었고 원로 언론인들에게 영화 감상과 음악회, 그리고 문화탐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 언론인들은 흔히 기자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한창 현직에 있을 때는 좋은 직장으로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직에서

모처럼 행복했던 하루

대한언론인회 기우회 바둑대회 우승소감



이 상 우
· 본회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차장

두번 대국한 적이 있으나 이번대회에서는 그가 초반에 탈락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나와는 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대한언론인회 기우회가 지난해 창립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었다. 아마도 현재 회우 가운데서 최고의 기력소유자인 정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낸것이 아닌가 싶다. 내 자신 진작부터 언론인회에 취미클럽인 바둑동호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왔었다. 10년쯤 전에 언론회의 유일한 산하단체인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나이들어 체력이 달리면 산행은 어려울것이고 말년의 취

미로 바둑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 기우회 창립을 건의했었으나 그때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그 바람이 이루어져, 등산은 졸업하고 수담으로 취미활동을 바꿔도 될것같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동안이나 즐길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어제, 오늘이다. 눈에 이상이 생겨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니 바둑두는 것도 머지않아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때는 무엇으로 취미를 삼을까. 다행히 귀의 성능은 아직 관창은 편이라 음악으로 넘어갈까 싶다. 전부터 노래듣기는 좋아했다. 요즘 젊은 아이돌 그룹

들의 시각적 음악도 즐겁거니와 재즈나 60,70대의 비틀즈, 밥 딜런, 엘튼 존, 존 비에즈, 사이먼과 가펄클 등의 노래는 지금 들어도 좋다. 뽕짝도 싫지 않다.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남인수의 '애수의 소아곡', 장세정의 '고향초'는 들을때마다 아련한 향수와 애수를 느끼게한다. '애수의 소아곡' 3절은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다.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던고, 모두가 흘러가면 덧없건마는..." 요즘에는 클래식 음악이 점점 좋아진다. 머지않아 육체의 힘이 고갈되어 삶의 여정을 마치고 떠나왔던 영혼의 고향으로 되돌아 갈때는 클래식의 선율속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그때는 어떤 곡이 좋을까. 베토벤의 교향곡3번(운명),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그중에서 2악장 로망스)도 좋겠고, 브람스의 교향곡 3번도 괜찮을것같다. 그보다는 차라리 차이코프스키의 경쾌한 소품 'Dance of the jesters'나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원무의 리듬을 타고 내영혼이 훨훨 천국으로 가는 환상을 가져본다. 

별로 즐거울 일이 없는 만년의 요즘, 내게 있어 2010년 11월 8일은 행복한 하루였다. 대한언론인회 산하 기우회가 주최한 제1회 바둑대회에서 당당히 A조 우승을 했기때문이다. 우승상금까지 받았으니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랴. 내 평생 시합같은데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늘그막에 바둑대회에 나가 수많은(?) 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에다 상금까지 거머쥐었으니 이창호, 이세돌이가 부럽지 않다. 사실 이날 진실로 행복했던 것은 평소 한번쯤 대국을 갖고 싶었던 옛 기우들을 대회장에서 만나 오랜만에 수담을 나눌 수 있었던 일이다. 그옛날 그러니까 40,50년전 출입처 기자실 같은데서 자주 바둑두었던 동료 기우들을 이번 대회장에서 만나 오랜만에 수담을 나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억순씨 같은 동료는 젊었던 시절 자주 바둑을 두었는데 그동안 몇 차례 만난적은 있지만 한번도 대국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 대회에서 반상의 회포를 풀 수 있었다. 이시현씨는 한동안에 살면서도 대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기정씨(기우회 회장)는 최근 한

溫故知新

松江歌辭

- 한잔 먹세그러, 또 한잔 먹세그러
꽃 꺾어 산(算)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러 이 몸 죽은 뒤면 지계위에 거적
덮어 졸라서 메고 가나 유소보장(流
蘇寶帳)에 만인이 울며가나 역새 속
새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흐린 날 흰 달 가랑비 쇼쇼리바람 불
제 누 한잔 먹자할꼬 하물며 무덤위
에 잔나비 휘파람 불제야 누우친들
어찌하리. -

이 가사(歌辭)는 평생 술 좋아했던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장진주사
(將進酒辭)'다. 본문 가운데 '산 놓
고'는 셈 하고, '유소보장'은 화려한
꽃상여란 뜻이고, '쇼쇼리바람'은 회
오리바람의 옛말이다. '장진주사'는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며 술을 권하
는 노래로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자연
스럽게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감, 애
상(哀想)의 정조(情調) 등을 격조
높게 표현한 걸작이다. 송강은 벼슬
이 좌의정에 이른 고관이고, 동서 당
쟁 초기에는 서인(西人)의 영수였던
냉혹한 정치가이기 이전에 열정의 시
인이었다. 송강은 우리나라 가사문학
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대시인이다.
송강가사 없는 국문학사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는 당쟁의 회오리바람에 휘
말려 부침(浮沈)을 거듭한 정치적
풍운아이면서도, 구슬같이 영롱하고
별빛처럼 아름다운 수많은 시 작품을
남김으로써 국문학사에 불멸의 거봉
으로 우뚝 섰다.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나 다 같이 보배로운 그의 가사문
학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난세에 태어나 순탄
치 못한 벼슬살이를
한 덕분이다. 왜냐하
면 '관동별곡(關東別
曲)' 등 일부를 제외
한 '사미인곡(思美人
曲)' 등 대부분의 걸
작이 귀양과 은둔시
절에 지은 것이기 때
문이다.

그는 타협을 모르
는 가열(苛烈)한 성
품 탓에 영욕(榮辱)
으로 점점이 얼룩진
정치가의 길을 걸었
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달리 파스한 눈길로 자연과 인생을
관조(觀照)하며 시를 읊었다. '관동
별곡'은 강원감사로 부임한 송강이
강원도 전역을 유람하면서 산수의 경
개, 인정과 풍속, 고사 등을 읊은 송
강가사 가운데 가장 긴 작품이다.

- ...천심절벽을 반궁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굽이를 촌촌이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 이어 베같이 걸었으니
도경(圖經) 열두 굽이 내 보매는 여
럿이라 이 적선(李適仙; 이태백) 이
제 있어 같이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낮단 말 못 하려니 산중을
매양 보라 동해로 가자어라

명사(明沙) 길 익은 말이 취선(醉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仙)을 빗기 실어 바
다를 곁에 두고 해당
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
나... -

송강이 '관동별
곡'에서 금강산 구룡
연과 해금강 등을 묘
사한 솜씨인데, 그의
시재(詩才)는 참으로
천재요 신기(神技)라
고 찬탄할 수밖에 없
다. 송강이 위대한
시인인 까닭은 남의
글인 한문자가 아니

라 쉽고도 평범한 우리 한글을 갖고
다듬어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사문학
을 창조한 데에 있었다. 선조 22년
(1589) 정여립사건이 일어나자 송강
은 그 옥사(獄事)를 지휘하여 동인
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한 공
으로 그해 11월에 우의정으로 등용
되었다. 그러나 정여립사건은 오늘날
동인 편, 내일은 서인 편을 들며 자
신의 왕권안보에 이용하던 엽기적 국
왕 선조(宣祖)가 동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파놓은 함정사건이었다.
송강은 그 이듬해에는 좌의정으로 승
진했는데, 세자를 세우는 건전(建儲)
사건에 말려들었다. 영의정 이산해

(李山海)와 함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건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산해가 약속빠르게 빠져버린 탓에
고지식하게 혼자서 총대를 메고 나섰
다가 파직된 것이다. 벼슬이 떨어진
송강은 남북 수 천리를 오르내리며
귀양살이를 했다. 그렇게 2년간 모진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어느덧 57
세의 노인이 되어버렸다.

선조 25년(1592) 4월에 임진왜란
이 일어나 의주로 피란 가던 선조가
개성에서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송강의 유배를 풀어주었다. 평양에서
선조를 만나 호종하던 송강은 이듬해
5월에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으나 전쟁 중에도 당쟁은 끊이
지 않아 또다시 벼슬을 버리고 강화
도로 들어가 칩거했다. 그렇게 말년
을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가 1593
년에 파란중첩했던 인생살이의 막을
내리니 그때 58세였다.

그의 묘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 어
은리에 있다. 사당 송강사에서 묘소
로 올라가는 야트막한 야산 기슭에
'사미인곡' 일부를 새긴 송강시비(詩
碑)가 서 있다. 정치는 어지럽고, 인
정은 갈수록 각박하고 메달라 이래저
래 살기 힘든 세상. 고단한 삶의 멋
과 여유를 잠시라도 되찾기 위해서
이따금씩 송강가사 한 구절을 읊어보
면 어떨까.

-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고야
염창(炎凉)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
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
도 할 샤. ㉞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장정호의 부친이 501특무대로 불려가
거칠게 다루어져 몸져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경남남해군에서 천석지주로 알려졌는
데 전답을 모두 처분, 부산시내 대청동
큰 거리에서 대중목욕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후시간 짬을 내서 병문안을 했
다. 노인이 몸져 누워 일어나 앉지도 못
했다. "자식놈과 사위를 잘못두어 이지
경이 됐고—" 노인은 말을 흐리며 서럽
게 울기 시작했다. 장정호의 자형 이청
기는 일본 동경 어느 대학을 다니다가
강제학병을 벗어나기위해 '후잔닛뽀(부
산일보)' 기자로 근무하다가 해방후 부
산일보 총무국장을 지냈으나 좌경신분이
드러나 쫓기는 몸이 됐다.

장정호는 자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나는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면서 '불
효'라는 말과 함께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할수 없이 우울했다.

어느날 장정호가 부산거리에 나타났
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고 흰고
무신을 끌고 있었다. 용케살아 났구나
싶었으나 얼마동안 내 앞엔 나타나지 않
았다.

들리는 말로는 대전에서 잡혀 수감생
활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 독립운동가
노인'이 경무대로 우남에게 전화해서 이
청년을 풀어주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장정호의 화려한 부활

이승만 대통령의 지
시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장 정재환이 신원
보증을 하고 장정호는
천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정재환 검사장의 장
남 정수봉은 경남중학
(구제4년)출신으로 나
와 동창이었다.

정재환씨는 그후 법
무부장관까지 승진했고
퇴임후에는 동아대학
총장을 지냈다.

수정국민학교를 징발
했던 국방부는 서울로
떠나면서 전교 어린이
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감사장을 전
달했던들 삭막한 당시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훈훈함을 안겼을텐데 아쉬움을
남겼다.

장정호는 어디 발붙일곳도 말 친구도
없었는지 민주신보앞 다방에서 석간, 조
간 마감을 하고 하루의 일과에서 풀려나
는 나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그러나 장정호는 미
안했다는 한마디도 없
었고 나는 그의 행동을
탓하지도 않았다.

동화통신이 창간되면
서 견습기자를 모집했
다. 장정호는 입사 시험
을 보았다. 원서접수때
'대학학력이상' 이라는
규정에 걸려 체념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접수만
이라도 해달라고 애원,
어려운 관문을 넘겼다.

어느날 장정호는 합
격통지를 받았다고 몸
시 좋아했다. 야간열차
편으로 상경한다는 말
을 남기고 떠나는 들뜬 그의 모습은 지
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동화통신 견습시절 법조출입을 할때
장정호는 커다란 특종을 했다.

기자들이 모두 나가고 기자실도 문이
잡기고 검찰청시는 고요가 감돌았다.

장정호는 적막이 감도는 청사를 한바
퀴 도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차장검사실 앞을 지날때 심상치 않은
말이 들려왔다. 장정호는 차장검사실 출
입문에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그즈음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열차 강도사건의 진범이 미군병사들이었
다는 담당검사와 부장검사의 보고 내용
이었다. 장정호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그곳을 떠났다.

이 특종기사는 도하 각신문에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어졌다. 한국일보 장기
영사장으로부터 장정호를 당장 데리고
오라는 명이 떨어졌고 장정호는 한국일
보 기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때까지는 조선일보 법조출입 캡 조
동오가 터뜨리는 특종기사로 한국일보
법조출입기자들은 머리를 숙였었다. 동
아일보 법조출입기자가 국방부출입기자
로 왔다. 나는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조
동오와 장정호의 특종경쟁의 싸움의 승
자는 누가 되리라 생각하느냐고.

나와 장정호의 사이를 익히 알고 있
는 이 기지는 한참 뜬을 들였다가 장정
호가 조동오에게 밀리고 있다는 말이었
다. 조동오와 장정호의 특종 경쟁은 각
사 기자들의 화제가 되고 있었다. 장정
호는 잠적한 뒤 나타나면서 이름을 장정
우로 바꾸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
른다. 張政鎬에서 張廷佑로. ㉞

현원복 원로회우 별세

현원복 원로 회우가 12월 19일 별세, 21일 오전 9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향년 81세. 현원복 원로회우는 1929년 4월 1일 함남 신흥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63)하고 미국컬럼비아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고 현원복 회우

1958년 세계통신 외신부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동화통신 외신부, 서울신문 학술부차장, 주미특파원, 과학부장 겸 논설위원, 기획위원을 역임

하고 언론계를 떠나서는 한국연구개발단지 공동대변인, 한국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과학기술처 정책자문위원, 한국과학사회연구소장,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 한국과학저술인협회상을 수상하고 '과학자의 길' '한국과학재단 5년사' 등의 저서를 남겼다. [국문]

이경남 원로회우 별세

이경남 원로회우가 지난 12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장례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14일 오전 6시 기독교 의식으로 거행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홍원기 회장이 정운중 상임이사와 함께 분향하고 조의를 표했다. 이경남 원로 회우는 1929년 1월 31일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 1950년 평양 사범학교 국문학과를 중퇴하고 북한유격대로 복무 중 전격적으로 귀순해 육군 정훈 장교로 금성총무 무공훈장을 받는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치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58년 신태양 기자 편



고 이경남 회우

집장, 실화 여상 편집장, 한국시인협회 총무간사심의회위원등을 역임했고 65년 5월 현대경제 일요신문 문화부장, 사회부장(67) 편집국장(71) 전무이사(73)를 역임, 언론계를 떠나서는 현대공론창간 발행인(88) 한국발전연구원 상임고문으로, '설산 장덕수', '이화학당', '북한 7300일 운명의 4일', '이 역사의 순간들', '선구자, 북한에 어리는 별', '큰 역사에 바치는 작은 증언- 친북좌파 꺼져야 통일이 온다'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국문]

故 현원복 형을 보내며

신우식(본회 고문)

그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구랍 20일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상주(장남·永根)는 “발병 하루만에 돌아가셨다”고 울먹었습니다. '9988124'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를(1,2) 앓고 가는 것(4)을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루만에 가시다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천안에 사시다가 2009년 아들집에서 독립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새집을 짓고 이사 왔으니 한번 만나자는 전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한번 만나자는 약속은 왜 못지키시고 그냥 가십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픕니다.

현형과 저는 서울신문에서 한창 나이 30대에 편집국의 차장, 부장, 부국장급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1965년 조용중 편집국장이 진주(進駐)하면서 의욕적인 신문제작을 꾀했습니다. 이때 동화통신에서 현형을 스카우트해 와서 신문역사상 전무후무한 학술부를 만들어 과학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1968년에는 과학부가 독립되어 우리 신문사(史)에 과학기 자시대가 활짝 개화(開花)하였습니다. 이른바 과학기자 1세대가 이때 맹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심승택(한국일보) 현원복(서울신문) 이종수(중앙일보) 김재관(동아일보)이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이 '4인방'이 한국의 과학저널리즘을 확립하지 않았습니까. 현형은 한양대에서 과학기사를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학기자 1세대에 바짝 붙어서 이광영(한국일보) 최선록(서울신문)과 같은 유능한 과학기자가 배출되었습니다.

현형은 열심히 뛰는 과학기자였습니다. 그러나 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과학기자였습니다. 언론인물사전에 그의 학력(대학)이 '1963년 성균관대학 영문학과 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훨씬 전(1952년)에 '연세대 이공대 생물학과 중퇴' 학력을 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 재직중(1968)에는 미국 컬럼비아대 신문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형은 참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과학과 매스미디어' '과학자의 길'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세계의 정상기업' '에세이 두꺼비의 사랑노래' '한국과학재단 5년사'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형다운 역저(力著)는 팔순을 맞은 2009년에 내놓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과학 100년사를 정리한 '우리 과학, 그 백년을 빛낸 사람들'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명기 요람기 도약기로 나누어 한국의 과학자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총정리한, 그야말로 역저로 평가받았습니다. 집필에만 장장 4년이 걸렸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큰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현형, 현형과의 서울신문 시절, 10년을 어찌 다 잊겠습니까. '미량영양소'를 섭취해야한다는 과학부장 나름의 '갑인 이설'로 젊은 기자들을 괴었던 나날들이 그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신 현형, 그곳에서 영생하소서. [국문]

故 이경남 선배를 추모함

김호기(본회 감사)

지난 12월 13일 대한언론인회 洪元基 회장으로 부터 선배님의 작고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짧은 시절 축구로 몸을 다졌고 구월산부대



고 이경남 회우 빈소에 홍원기 대한언론인회장이 조문하고 있다.

참모장등을 역임하면서 강한 정신력을 갖고 계셨던 선배님께서 전에 수술했던(5년전) 대장암 후유증으로 입원한지 10일 만에 세상을 떠셨다는 허망한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한국경제신문 전신인 현대경제일보 사회부에서 부장과 기자의 만남이었지요. 매사에 신중하시고 큰 소리 한번 내시지 않으시면서도 빛나는 지면제작을 하였던 선배님이시었기에 헤어진 다음에도 늘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선배님은 언론인이면서 학자이고 반공 투사였습니다. 선배님은 6·25 한국전쟁 때 인민군장교로 입관한 후 감시하던 당원들을 빼돌린 다음 소대원 42명을 고스란히 이끌고 국군 제 6사단 7연대에 집단 귀순한 귀순용사였습니다. 선배님은 귀순 후 구월산유격대가 조직된 1951년 2월부터 휴전이 성립된 53년 7월까지 작전참모, 참모장으로서 자유의 불꽃을 피우며 20대 초반의 청춘을 후회 없이 연소시켰습니다. 선배님이 타계하기 전 남긴 '큰 역사에 바치는 작은 증언-친북좌파 꺼져야 통일이 온다'는 책은 선배님이 얼마나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무장된 자유언론인이었던가를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신문사 재직 시에는 물론 신문사를 떠난 다음에도 왕성한 집필활동을 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두툽한 책 두 권이 배달되어 뜯어보니 선배님 회고록 '자유를 위한 회고록'이었습니다. 1·2권으로 되어 있는 회고록에는 사진까지 곁들여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신문사 재직 시절부분에서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전부 한자로 명기했는데 오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억력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부장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 제가 차장으로 승진됨을 일주일전에 알려주면서 인사 방이 불을 때까지 각별히 몸가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일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승진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 마치 큰형님처럼 보살펴 주셨지요. 또 하나 제가 살아가면서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말이 있어 소개합니다. 언젠가 술 좌석에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발 앞서 가지 말고 반발만 앞서가도록 하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한발 앞서가면 시샘의 대상이 되고 한발 뒤늦게 가면 무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반발만 앞서 가라는 뜻이었다. 매사에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선배님이시었기에 새삼 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신문사에서 편집국장, 전무까지 역임하고 떠나서 同和연구소 설립, 소장에 취임하고 月刊 同和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았었고 그 후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옮겨 매월 조찬모임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기에 적어도 90은 넘기시리라고 생각했는데 81세의 나이로 훌쩍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으로, 3남 1녀의 아버지로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시다 가신 선배님께서 하느님나라에서도 하느님의 축복 속에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문]

한국언론인물사화 제7권 찾아가세요

대한언론인회는 이번에 '한국언론인물사화' 제7권을 간행하고 회우 여러분께 배포 중입니다. 회우 여러분께는 별도로 우송하지 않습니다. 1월 25일 까지 본회 사무실에서 배포합니다. 배포처 : 대한언론인회 사무처 (전화 732-4797, 4798)

大韓言論人會

언론사 社友會 소식

송년모임 대성황

경향신문

12월 1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김규제 조규진 윤상철 이형균 오동환 이규섭 이상호 정운중 맹태균 본회 회우등 100여명 참석.

동아일보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본회 김광희 김준하 이명동 남시욱 회우등 전현직 사우 4백여명 참석.

서울신문

12월 9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170여명의 회우들로 대성황을 이룬 서우회는 창립 3년 6개월만에 회원 1천여 명을 돌파했다.

서우회는 또 첫 친목단체로 산악회(공식 명칭 서우산악회)를 출범시키고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 산행을 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1일 창립기념 등반대회에는 15명의 사우가 참가했다. 서우산악회 초대회장엔 김선중씨가 선임됐다.

신아일보

2010년 12월 9일 서울 중구 정동 이파리아노. 윤임술 본회 원로 회우, 김종하 김길홍 정운중 김용발 장 옥 회우 등 100여명 참석.

조선일보

12월 15일 조선일보 대강당에서 4백여 회우가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일보

12월 7일 오후 6시 한국일보 본사 2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 김충한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홍원기 본회 회장을 감사로 재선임했다.

헤럴드 미디어

12월13일 저녁 6시 프레스센터19층 매화 홀. 100여명 참석.

KBS

12월 16일 6시 KBS 본관 식당. 김은구(본회 상담역) 김성배(본회부회장) 안평선(본회 이사) 등 5백여 회우 참석.

SBS

사우회 설립 후 처음으로 불우이웃돕

기 행사를 가졌다. 12월 22일 오후 2시, 사우회 사무실이 위치한 영등포 관내 신길동 소재의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원장 김금상)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2003년에 개관한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은 영등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 목욕, 이발, 컴퓨터 교육, 푸드뱅크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재활시설(복지센터)이다. 성금 전달식에는 최겸수 부회장, 이시권 기획이사, 서상정 운영위원, 윤충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신영균 명예고문이 쾌척한 기탁금을 사우회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용중 회우 산수축하 모임

조용중 원로회우의 산수를 축하하는 모임이 지난 12월 22일 낮 12시30분 회현동 렉스호텔에서 있었다.

손세일 본회 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등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에는 지난날 언론계를 주름잡던 원로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화제의 꽃을 피웠다. 참석자들은 2029년 조용중 선생 백수연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전직 언론인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김동익(전 중앙일보 주필 사장) 김영수(전 국회의원, 전 MBC 사장) 김용원(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삶과 꿈 대표) 김용태(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전 국회의원) 김윤곤(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은구(전 KBS 경영본부장, KBS 아트비전 사장) 김종욱(전 경향신문 사진부장, 월간 모터 매거진 사장) 남시욱(전 동아

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사장) 문창국(중앙일보 대기자, 관훈클럽 신영기금이사장) 박용근(전 동화통신 정치부기자) 봉두완(전동양방송 앵커, 전 국회의원) 서동구(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스카이라이프 사장) 손세일(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 국회의원) 송정숙(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전 보사부장관) 신우식(전 서울신문 사장,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안병훈(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부사장,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이광훈(전 경향신문 주필) 이억순(전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주필) 이종식(전 연합뉴스 전무, 전 국회의원) 장명석(전 경향신문 사장) 정진석(한국의국어대 명예교수) 조천용(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한중우(성곡재단 이사장, 국민대 재단이사장) 홍순일(전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 논설주간) [출처]



정재호 회우 팔순축하 모임

일산언론인모임(회장 윤기병·본회 부회장) '일언이금회'는 지난 12월 9일 송년회를 갖고 정재호 회우(본회 논설위원·전경향신문 논설위원) 팔순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날

모임에는 팔순을 맞은 정재호 회우를 비롯, 김해도 손세일 윤기병 이억순 정운중 본회상임이사와 박형규 전 국회의원, 정규용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출처]



홍원기 회장등 박경리문학제 참가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은 지난 12월 4일 원주시 토지문학관에서 열린 박경리(朴景利)문학제에 초청받아 문학포럼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본회 김

은구 한기호 윤익한 상담역과 이태영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포럼이 끝난 뒤 유재천 총장 김지하 시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출처]

지방지 우수작품 시상

일경언론문화재단
윤임술 본회 회우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은 지난 12월 14일 2010년도 지방지 우수작품 4건에 대한 시상식을 프레스센터에서 거행했다. 대상(大賞)에는 한라일보의 '세계지질공원' 선정에 기여한 6년간의 기획물(상금 1000만원)이 채택되었고 장려상에는 부산일보의 '베트남 새댁 살인사건' 심층보도(상금 300만원)와 춘천문화방송의 '터키 참전용사' 스토리(상금 300만원)가, 특별상에는 대전문화방송의 '산동네 개발'(상금 200만원)이 각각 선정되어 상금과 상패가 주어졌다. [출처]

천관우 선생 추모문집 발간준비위 회의 열어

언론계의 거목 고 후석(後石) 천관우(千寬宇)선생 추모문집을 발간하기 위한 기획준비위(위원장 강승훈)회의가 29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계와 사학계, 그리고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생의 업적과 일화들을 추모문집에 담아 내년 신문의날인 4월 7일 발간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언론계 : 이혜복·제재형(대한언론인회 고문), 홍원기(대한언론인회 회장) 강승훈, 공대식, 권도홍, 남시욱, 맹태균, 박실, 박진서, 손일근, 여영무, 오진식, 이병대,

학계 : 정진석(전 한국의국어대학 교수) 민현구(전 고려대 교수)

출판계 : 신동설(출판사 정미디어 대표)

‘전시 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준칙’

한국언론진흥재단 긴급토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12월 20일 11시 30분 최근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전쟁 혹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한국언론 취재보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취재보도 준칙제정 등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 전문가를 초청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전시비상 상황에서의 취재 보도준칙’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언론의 경쟁적 상황보도가 자칫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취재 기자 본인의 생명과 안전 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능한 한 생생하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는데 주

안을 두고 열린 것이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운영철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하고 박성수 KBS 해설위원과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김귀곤 연합뉴스차장,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출처]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진도 역사문화대사 위촉



구중서 회우(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12월 29일 전남 진도군(군수 李東鎭) 삼별초 왕국의 궁궐터인 군내면의 용장산성 왕궁지에서 있는 '고려함흥충혼탑' 제막식에서 진도명예군민 및 진도 역사문화대사로 위촉 됐다.

DTV코리아 회장 재선



김인규 본회 회우(KBS 사장)=지난 28일 열린 한국지상파 디지털방송추진협회(DTV코리아)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재선.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 집필



김영택 회우(전동아일보 기획위원) = 11월 2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행한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 제1부 제2장 '5·15 민주항쟁' 편을 집필. 지난 11월 3일엔 흥사단 강당에서 '강제병합 100년, 한국근대사의 흐름과 기억을 읽는다' 등 특별강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김진현 회우 =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새롭게 이어갈수 있도록 박물관을 짓겠다"고 밝힌 이후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일산언론인모임 회장



김해도 회우(본회 편집고문·전 한국일보 논설위원)=12월 9일 일산언론인 송년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현영건 원로회우 문병



민 기 원로회우 =12월 18일 한일병원에 입원중인 현영건 원로회우를 문병하고 금일봉을 전달. 이날 문병에는 조성국 원로회우가 동행했다.

제2회 동우 '몽도상' 받아



박경석 회우(전 국회의원·동아일보 논설위원)= 12월 14일 열린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송년모임에서 제2회 몽도상을 수상했다. 몽도상은 고 이동수 동아일보 초대 동우회장의 유족이 기탁한 5천만원으로 제정됐으며 몽도는 이회장의 아호다.

속초시 공정시민연대 초대회장



박명근 회우(본회 복지 기금 관리 위원장)=12월 13일 속초시공정사회시민연대 초대회장에 추대됐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공정사회 시민운동을 통해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화사랑 반세기 출판기념회



안광식 회우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숨겨진 얘기를 책으로 엮어 지난 12월 15일 오후 5시 이화여대 옛 운동장 ECC 지하4층 이삼봉 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미주리주립대 한국총동문회장



양희부 회우(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최근 미국 미주리 주립대 한국총동문회(회원 3천명)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다.

'한 맺힌 사부곡' 인터뷰



이태영 본회 부회장(6·25 남북인사가족회 이사·전 중앙일보 편집국색션 국장)= 동아일보 12월 15일자 2면에 남북자문제를 주제로 인터뷰. 이태영 회우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유명한 동아일보 이길용기자(납북)의 아들이다.

'한국현대사' 시리즈 연재



정범태 회우 = 한국일보 삶과 글 난에 '정범태의 사진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시리즈로 연재 중이다.

'방송광고시장의 전망' 세미나



조강환 회우(방송통신연구원장)=12월 20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과 미디어랩도입을 중심으로 '국내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광고 시장의 전망'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궁화대상 언론부문상 받아



제재형 본회 고문(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부회장 겸 자유대한신문 편집인) = 지난 12월 10일 서울 공군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대한무궁화 중앙회 창립 34주년 기념 제19회 올해의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언론부문을 수상했다.

바른말보도상 시상



한영섭 원로회우 = 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으로 지난 12월 10일 SBS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을 주관.

1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1일 김건이	19일 김일택 신성순 이흥기
2일 김진현 이상갑 조덕연	20일 이석홍 제재형
3일 장 옥	21일 노철용 이종완
4일 박영래	22일 이종준
7일 김해도	23일 김영수 안광식 이상우
9일 김상수	25일 김응환 김 현 이보길
10일 임상학	26일 이성호 이웅희
12일 심의표	28일 김 호 문명호 조광현
13일 이정식 홍진태	29일 이병천
15일 고택용 엄기형	30일 김종옥 이태고
16일 이재승 정덕교 한종광	31일 김용구 신동호
18일 남재희 최시호	

주소변경

나필성 회우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34 휴먼시아 204동 207호 (우 477-865)
박우정 회우 =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 보라매 롯데캐슬 32호 (우 151-830)
유한준 회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1동 1262 보성 아이월드 401동 103호
이병대 부회장 = 휴대전화 010--3711-7330으로 변경
이억순 회우 = 경기도 고양시 양천구 일산3동 후곡마을 911동 602호 (우411-731)
이호계 회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헤리티지 107동 401호 (우463-869) 전화 031-717-9893
이흥기 회우 = 서울 성동구 1331 두산아파트 103동 502호 (우133-751)

연회비 납부

2004년 이해성	조강환 조덕동 한태열
2008년 이경문(01-07년포함) 이청수 이해범(01-07년포함) 정병수	2011년 강진형 공대식 박찬호 김귀제 김세경 김양섭 김영일 김영호 김은구 김의수 김종범 김호곤
2009년 김상희(05-08년포함) 김정훈 김종하 김지용 박범진 박정규 배병휴 이청수 이 휘 인보길 정병수 조강환 조덕동 최재욱	김화 남시욱 도준호 문청 민정기 박광춘 박실 송두빈 송선무 신현 구 여영무 윤병찬 윤석웅 이구열
2010년 강성구(07-09포함) 구월환 김정훈 김중하 김재근 문동성 문청 민정기 박범진 박응칠 박정규 박진서 배병휴 안건혁 오동환 이태영 이상호 이주혁 (04-09년포함) 이한수 이 휘 인보길 전신병 정병수 정창기	이배국 이상근 이성호 이순기 이 억순 이종기 이종완 이종윤 이철 지연홍 최종수 한영도 홍성혁 황대연
	2012년 김은구 윤병찬
	2013년 유한준

찬조금 내주신분

이태영 본회 부회장 = 일금 50만원

회우 수첩제작...신상변동 사항 알려주세요

회원 수첩을 제작중인 본회는 회원 여러분의 신상변동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변경 된 분에 한함)와 이메일 주소를 2011년 1월 10일까지 본회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 수첩은 2011년 1월 28일 정기총회 때 배부합니다.
연락처: 전화 02) 732-4797, 4798 이메일 kjc1405@hanmail.net
팩스 02) 730-1270

동행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기업과 방송이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친구,
국민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의 친구들과
멋진 하모니를 이뤄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